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2024 선배들의 진로 이야기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CONTENTS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조현희	6
중어중문학	장예나	11
노어노문학	김영울	16
사학	서은교	22
문헌정보학	서종은	28
심리학	문수인	32

상경대학

경제학	김범준	38
경제학	이준석	43
응용통계학	신재우	48

경영대학

경영학	김도연	53
-----	-----	----

이과대학

수학	남수현	58
물리학	김해성	63
화학	이민정	69
지구시스템과학	문지욱	73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	이지원	80
건축공학	이덕용	85
도시공학	서호연	90
기계공학	손혁제	94
신소재공학	박찬욱	99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	이한아래	105
-----	------	-----

인공지능융합대학

인공지능학	황정태	110
-------	-----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임도윤	116
언론홍보영상학	이재영	122
사회학	백선우	127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	김영식	132
식품영양학	박희선	138
아동·가족학	이은영	143
통합디자인학	박수빈	147

교육과학대학

교육학	김수빈	154
-----	-----	-----

대학 생활, '나'를 알아가는 과정

23학번 조현희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23학번 조현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어떤 이유로 국어국문학과에 오게 되었고, 어떤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어국문학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대학 생활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대학 생활을 계획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적성? 취업? 전공,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할까?’, ‘나는 어떤 분야에 적성이 맞을까?’ 여러분께서 가장 고민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공을 선택하다 보면 진로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전공 선택 과정에서 나의 관심 분야보다는 ‘취업하기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막연히 취업하기 쉬운 것이라는 생각에 경영학과를 지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에 한 번 실패한 후로, 반수를 할 정도로 다른 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어차피 떠날 학교이니 내가 잘하는 언어 분야를 공부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다녀 보니 국어국문학과가 저의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언어’라는 것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 사회 현상들을 탐구하는 것이 즐거웠고 저의 식견을 넓혀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기억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여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전공에 대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적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적성보다는 당장 취업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공부란 결국 ‘학문’이기에 나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고 결과도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학년 들어서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위해 경영학 전공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강하는 내내 정말 말 그대로 공부를 ‘몸이 거부’하는 경험을 했

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학문을 배우는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이 저를 성장시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흥미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영학과에 정말 뜻을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면서 다양한 지식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도 없는 경영학과에 몸을 담으면서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경쟁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은 취업을 위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는 경험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저의 능력에 진정한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공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신 후배님들께서도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공부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분야일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울 수 있을지’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 생활 4년이란 참 길면서도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각자 목표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크게 진로와 개인 소양 함양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계획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로

저의 목표 진로는 '판사'입니다. 법조인이 되어 소외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법조인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먼저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 학기 법 과목을 1개씩 이수하고 기본적인 학과 공부에 힘을 들입니다. 특히 저처럼 로스쿨 진학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대학 생활에서 더더욱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수월하게 학점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과에서 학점을 챙기는 일이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학과 공부 외에 연합 법학회 'SLS'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3학기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학년 1학기 때에는 학회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법학회 활동은 사실 저처럼 일찍 하기보다는 1학년 때 법 기초 과목을 수강 후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에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와 연계하여 법학회 활동을 희망하신다면 법이나 판례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일반 학부 수업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토론 경험이 법조인으로서의 소양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는 소속 중인 '두울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멘토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제 법조계에서 재직 중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막연히 꿈꾸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봄으로써 내가 이 직업에 맞을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를 더 명확하게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소양 함양

대학 생활에서 어떤 구체적인 진로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학년 때에는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과 '기본 소양 함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나 목표는 수단일 뿐 목표는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과 소양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대학 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리더십'과 '인문학적 소양'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입니다. 2학년에 들어서면서 저는 연합 법학회 회장, 국어국문학과 제18대 학생회 <동글> 대외협력국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들을 하면서 학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경험들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공동체의 단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면서 사람을 '믿고', '함께' 무언가를 기획하고 이루어 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단합을 경험하면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제가 현재 국어국문학과에 몸을 담고 있고 앞으로도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인문학이란 저와 뗄 수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연합 독서 토론 동아리 '수대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울장학재단에 합격한 이후로는 매달 장학재단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학교, 연령의 사람들과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국어국문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때 저는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장함을 느낍니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일환으로 운동주 기념관 도슨트 활동 및 운동주 평화 포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도슨트 활동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였지만 저의 현 대학 생활에서 정말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언변 능력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매번 해설을 진행할 때마다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슨트 활동으로 기회를 얻어 참여하게 된 평화 포럼에서도 운동주와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해서 열정 있는 다른 학우들과 함께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저에게는 앞으로 학부 졸업까지 약 2년의 대학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3학년 1학기

에는 네덜란드 교환 학생을 통해 해외 생활 경험과 다양한 여행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그동안 달려온 저에게 휴식과 생각의 시간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귀국 후 3학년 2학기부터는 RA 활동으로 송도에서 신입생들과 함께 성장을 경험하며 개인 소양을 다듬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큰 법학회에서 새로운 법 공부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학 생활 계획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대학 생활을 통해 얻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에 따라 무엇이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슨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능력과 적성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학년 RC 101 수업에서 진행하는 나의 미래 계획 작성을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때 작성한 미래 설계대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더 알차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

‘나’를 위한 대학 생활

저는 여러분께서 대학 생활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성장하고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대학생이란 위치는 정말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실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건강하게 아는 것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진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전공이나 선택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해보세요! 무언가를 시도했다 실패하는 것에는 후회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배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해보지 않아 후회하는 것은 평생 큰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의 길목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 무엇일까?”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mandycho@yonsei.ac.kr로 편히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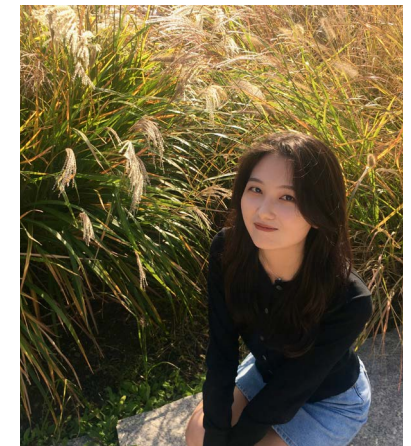
21학번 장예나

안녕하세요. 중어중문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장예나입니다.

1

전공 선택 이유

어렸을 때부터 소설 읽는 것을 좋아했고 글 쓰는 일에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중국어학과를 전공하여 중국어 공부에 자신이 있었고 대학교에 가서 고급 수준의 중국어를 학습한다면 저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향후 어떤 커리어를 쌓더라도 중국에 대한 높은 이해는 저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나의 대학 생활

저는 흔히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21학번입니다. 그래도 새내기 때 과 동기들과 종종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고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새내기 생활을 즐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배워서 자신감이 없지 않았는데 입학해 보니 과 동기들의 절반이 중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두 개의 전공필수 과목만 듣지만 2학년부터는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들을 성실히 듣고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중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과 수업은 다양하게 개설되지만 시험은 주로 암기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발표와 토론 수업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2학년 2학기에는 진로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해 시야를 넓히고자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시작했습니다. 인턴 공고들을 검색하며 상경계열을 우대하는 직무들이 있다는 것과 사기업의 직무들이 전략, 기획, 마케팅, HR, 회계/재무 등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관련 지식을 쌓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복수전공을 통해 기본적인 경영 이론을 학습했고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케팅, 인사 및 전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만약 뚜렷한 진로 계획을 설정해 둔 경우 혹은 대외 활동이나 학회, 인턴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교직 이수나 연계 전공, 부전공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는 1학년 때부터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졸업 요건을 확인하고 다음 수강 신청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2학년 때부터 마일리지로 수강 신청을 하



기 때문에 총 이수 학점이 부족하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관심 있거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의들을 찾아보고, 학년별 정원 및 수업이 열리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강 계획을 세우고, 계절 학기 등을 활용하여 졸업 요건을 잘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학점의 중요성은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과 공부에 어느 정도 매진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장학금 수령이나 전과 및 복수전공, 로스쿨 입시 등을 위해 높은 학점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들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학년 때 취미, 봉사, 학술 분야의 총 7개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학교 내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 보고 싶었고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대학 입학 후 제가 발표나 토론에 강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보완하고자 2학년 때 독서 토론 학회에 가입하여 1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기들 중에는 경영 분야의 학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략, 마케팅, SCM, 인사 관련 학회 등이 있고 금융권이나 컨설팅 쪽 진로를 생각한다면 학회를 도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회 활동을 하는 것은 진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회의 모집 시기와 요구 조건 등을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 보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뿐 아니라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이 운영하는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팀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지원금을 받아 활동하는 것인데, 입학 이후에 사회적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노인 무위 해결'을 주제로 팀을 꾸려 세 학기 동안 활동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활동이 창업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워크스테이션과 관련된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학생들과 사회 혁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기회가 주어지니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3학년 2학기에는 영국의 University of Sheffield로 교환 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경영학과 전공으로 교환 학생을 신청하여 전략경영, 재무관리, 벤처창업론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총 9개 나라로 여행을 다녀왔고 해외 대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랭킹, 학과 커리큘럼, 위치, 날씨, 치안, 교통, 거주지 환경, 파견 보고서의 후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학교를 선택하면 됩니다. 토플 점수와 학점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넓은 선택지를 갖고 싶다면 높은 토플 점수를 만드는 것이 1순위입니다. 중국 교환 학생이나 방문 학생을 고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제가 코로나 학번이 아니었다면 중국으로의 교환 학생도 고려해 보았을 것입니다.

진로계획

저는 학과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길에 도전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대학교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학원 진학, CPA 취득, 국가 고시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 국제 기구 진출이나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국내 사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거나 금융권, 컨설팅 쪽 진로를 꿈꾸기도 합니다. 언론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학사를 취득하여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갈 수 있는 길은 정말 많으니 최대한 많은 길을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어중문학과 혹은 인문계열로의 장점을 살리고 싶다면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경우 교환 학생이나 대학원 입시,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공인 영어 점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꾸준히 영어를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어 실력을 기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종 중국어 능통자를 우대하는 직무들도 있기 때문에 중어중문학 전공자로서 능력을 드러내고 싶다면 저학년 때부터 중국어를 꾸준히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학 등을 이용하여 HSK를 취득하고 중국 교환·방문 학생 제도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고려한다면 인턴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커리어 연세, 학과 홈페이지, 다른 사설 취업 사이트들의 인턴 채용 공고 등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직무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로 계획은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어떤 것이 자신이라 잘 맞을지 검토해 보며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저는 제 4년간의 대학 생활이 '나에게로 이르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것에 도전하고 부딪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를 다니며 즐거웠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모두 학교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학과와 동아리에서 만난 마음 맞는 친구들이 대학생활을 잘 지탱해준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마음이 잘 맞고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 혹은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강의 커리큘럼에만 안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과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짧은 글에 담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것들은 나열된 활동들이 아니라 무언가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꼈던 여러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에 정답은 없으니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낭만 있는 대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중어중문학과 파이팅! (이메일 yena8974@naver.com)



노어노문학과? 그게 뭔데...

23학번 김영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을입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대전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 진학했고 현재 노어노문학과에서 전공 수업과 교직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공에 대해 물었을 때 ‘노어노문학과’라고 답하면 대부분은 다시 되묻습니다. 노어노문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전공을 하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전공 소개와 함께 최대한 진솔하게 저의 이야기를 적었으니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1

왜 노어노문학과였을까?

노어노문학과는 간단히 말하자면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 문화, 어학, 지역학 등 러시아와 관련된 전반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브나로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갖는 계몽 운동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어떤 언어의 발음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문득 단어의 어원이 궁금해져 찾아보니 ‘브나로드’는 러시아어의 ‘В народ’의 발음을 그대로 따온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는 러시아어 단어가 ‘스빠시바’ 하나였던 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과에 진학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브나로드’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말은 인사말입니다. 처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Здравствуйте)’를 배운 순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안녕하세요’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무엇인지 여러 매체에서 접해본 적이 있지요. 그러나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가 무엇인지 접해본 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러시아어는 특히나 기초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성, 수, 격과 같은 문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어려웠던 러시아어가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러시아어가 들리면 어떤 말을 했는지 알게 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다양해질수록 퀘스트를 하나씩 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어는 저에게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진학한 이유는 물론 러시아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러시아 문학 때문입니다. 저는 러시아 문학을 읽을 때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 작가가 의도한 부분은 무엇인지 문학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대학에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내가 놓치는 부분을 확인하고 더욱 재미있게 문학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어노문학과로의 진학을 꿈꾸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목표를 갖고 노어노문학과 진학을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러시아어를 배운 것도 우연이었고 노어노문학과에 진학하게 된 것도 단순한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대단한 목표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것, 내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경험하고 배우는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제 대학 생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2년간의 대학 생활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1학년은 무조건 송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지요. 이때 RC 프로그램이나 사회 참여 활동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습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즐거운 송도 생활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송도는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기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집니다. 매일 저녁 함께 공부하고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을 하나씩 쌓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공어과를 졸업한 경우에 1학년 때 전공어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에 대한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 교환 같이 전공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러시아어를 반복해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송도에서 열리는 전공 관련 과목은 러시아어 (1), (2), 러시아어연습, 러시아 문화예술, 러시아 문화 체험, 러시아학의 이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과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학과에 대한 설명이나 전공 설명을 듣는 RC 101 과목도 존재합니다. 저는 송도에서 열리는 전공 관련 과목 중 수강 가능한 과목은 모두 수강했는데 러시아 문화예술 과목을 통해 기초적인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고 러시아학의 이해 과목을 통해서 특별히 러시아 지역학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문화 체험 시간에는 연극을 보러 가거나 덕수궁에 방문해서 러시아와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를 듣고 정교회 성당을 찾아가 정교회와 관련된 물품을 직접 보고 성당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학생회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학년부터 지금까지 학생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1학년 때는 매달 한 번씩 신촌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여해야 해서 조금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신촌캠퍼스에 방문하여 선배들과 함께 과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가끔 진행되는 뒤편이도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기에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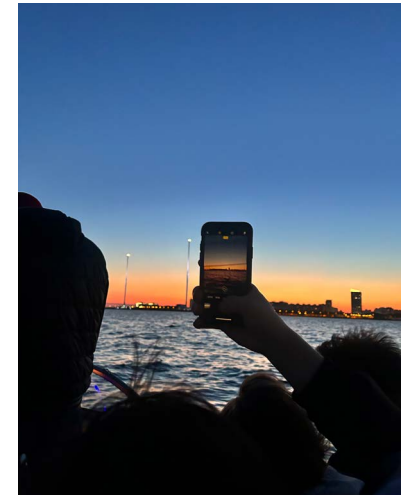
2학년이 되면 신촌캠퍼스에서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중급, 고급 러시아어, 러시아어 연습 과목이 전공어 과목으로 열리고 이외에도 러시아 문학, 문화, 어학, 지역학과 관련된 수업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과대학 건물인 위당관까지 올라가는 것은 조금

힘들지만 낭만 있는 신촌캠퍼스 백양누리를 걸으며 진짜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학년이 되면 동아리 참여도 수월해집니다. 저는 현재 과 동아리 ‘므하트’에서 활동 중인데요. 므하트는 러시아어 원어 연극 동아리입니다. 저는 1기부터 무대팀으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청혼’, ‘꿈’,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총 세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원어 연극 동아리라고 하면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러시아어가 어렵더라도 연극의 구성과 연출에 참여하며 같은 과 선배배끼리 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좋은 기회를 얻어 러시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에서 주최한 일주일간의 연수에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다녀오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어를 배웠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연과 예술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여름방학 때는 ‘교직 이수’를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직 이수는 제 오랜 꿈이기도 했기에,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교직 이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교직 이수는 3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신청을 받고 면접 이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교직 이수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4학년 1학기에 교생 실습을 완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졸업장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함께 교직 자격증이 발급되어 중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현재 많은 중등학교에서 러시아어 과목을 신설할 가능성을 보여 전망이 높은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러시아어에 흥미를 느끼고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싶다면 교직 이수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대학 생활 알차게 보내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아직 뚜렷한 진로를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러시아어를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로는 아직 뚜렷하게 정하지 못했지만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학년 2학기를 보내면서 교직 이수를 하고 있지만 3학년에는 복수전공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직 이수와 복수전공을 함께 할 경우 굉장히 복잡해지고 졸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일단 도전해 보고 싶은 패기가 있습니다. 3학년을 보내며 고급 러시아어 과목을 수강한 후 3학년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에 토르플(TORFL) 2급에 도전할 것입니다(토르플은 러시아어 자격증 시험입니다. 1급은 2학년 러시아어 과정을 수강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마음이 있다면 늦더라도 2학년 겨울방학 때 도전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4학년 1학기는 아마 교생 실습으로 바쁠 것 같아요. 교생 실습은 약 한 달 동안 배정 받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교생 실습을 마친 4학년 2학기 때는 교환 학생을 다녀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환 학생 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정말 다양한 외국의 학교와 결연을 맺고 있어 교환 학생에 도전할 계획이라면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할 것을 추천드려요! 현재 노어노문학과는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국립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극동연방대학교로의 파견이 가능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러시아어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한 후에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저의 목표가 될지 혹은 몇 년의 경험이 될지는 모르겠지

만 일단 지금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교사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어는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 러시아어를 좋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4

마지막 한마디!

감사하게도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저는 그저 러시아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특별한 것 없는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러시아어를 공부한 덕분에 대학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고 지금까지의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노어노문학과는 인원이 적은 소수 과이기도 하고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노어노문학'이 어떤 것을 배우는 학과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어노문학과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과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학생회, 혹은 문과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다채롭게 도전해 보세요. 노어노문학과에 왔다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와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러시아어를 배우므로써 어떤 것에 도전할 수 있고 어떤 곳으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이 있기에 오를 수 있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23학번 서은교

1

나의 대학 생활

공부 이야기: 정규 커리큘럼과 비정규 커리큘럼

공부 이야기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기 초, 중간시험 기간, 기말시험 시간에는 신경줄이 팽팽해지면서 모든 주의 집중이 정규 커리큘럼에 쏠립니다. 수강 신청을 전쟁처럼 치르고 드디어 학기 초 첫 수업을 마치면 우선 지정 도서나 참고 문헌이 도서관에 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도서관으로 직행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보물 찾기하는 듯한 뜻밖의 긴장감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약 도서관에 없거나 품질 도서인 경우라면 빨리 인터넷 중고서점에서 검색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규 커리큘럼 운영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다면 영어 공부나 제2 외국어 공부까지 고려하여 공부의 무게 중심을 살짝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특성상 고문헌을 해독할 능력을 확보해야 해서 한문 공부를 따로 시간 내어 배웁니다.

교유 이야기: 우정과 연애

기본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솔직히 시간이 없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도 제가 2학년이 되도록 연애를 못할 줄 몰랐습니다. 오는 인연을 굳이 마다할 필요도 없지만, 없는 인연을 굳이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친한 언니들 말로는 저에게 연애에 대한 간절함도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남의 연애사에 자극 받아서 혹은 남들이 다 연애하니까 해본다는 식의 연애는 저에게 있어서 어쩌면 시간이나 에너지의 고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우정이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는 몇몇의 소중한 선배 언니들이나 동기들과 우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친구가 꼭 많아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도에서의 일 년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정말 편안하게 좋은 사람들과 작지만 소중한 추억을 짝짝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은 친구를 찾아보고 발견 즉시 먼저 우정의 인사를 한번 건네보세요.

동아리 이야기: 교류와 나눔

교내 동아리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교환 학생들과 교류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내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도 활동하며 2학년 1학기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 차례 공연도 했습니다. 홀로 연마한 기량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경험은 뜻밖의 기쁨을 줍니다. 더구나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외 활동으로는 현대자동차 교육 봉사 활동으로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인근 대학 대학생과 함께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는데 바로 얼마 전 1년의 전 과정 활동을 잘 종료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봉사 활동을 찾아 내어 종로구 연동 지역에서 초등학생에게 교육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성장기의 불안과 혼란을 이겨내고 자기 꿈을 찾아가는 길에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것은 또 다른 색깔의 특별한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주는 사랑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공 선택 이유

전공: 역사학

역사에 대한 관심은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못 할 만큼 어릴 적부터 키워온 호기심입니다. 서재에 있는 오래된 책들도, 컬러 삽화가 들어있는 최신의 책들도 역사 주제라면 어떤 식으로든 만나 본 친구들 같습니다. 그러나 정식 전공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역사와 역사학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알게 되었고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가진 매력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집단 경험이 지역과 시대를 거치면서 문자 혹은 비문자의 형식으로 자기 존재를 남겼고 그 남은 흔적에서 사라진 궤적을 추적하는 학살로서의 역사학은 나를 언제나 매혹시킵니다.

1학년 때는 거의 교양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에는 주로 역사 관련 교양들과 유일한 전공기초 과목인 '역사학 입문'을 수강했습니다. 다양한 다른 분야의 교양 수업을 수강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사 관련 교양도 재밌고 충분히 유익했지만 계속 전공 수업만 듣게 되는 2학년 생활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2학년에 올라와서는 '한국사학입문' 전공필수 과목을 비롯한 전공선택 과목들을 수강했습니다. 1학기에는 '고대한국과 동아시아세계', '인도의 역사와 문명'을 수강했었고, 현재 2학기에는 6개의 한국사 전공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방대한 역사를 공부하며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해 더 정밀하고 폭넓은 거시적 관점을 가져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 제가 미처 잘 알지 못했던 세부 전공 지식들을 배우며 제 지식의 폭이 확장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편 한국 사학을 이미 세부 전공으로 마음 먹었지만 세계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한국사 외에 동양사, 서양사 수업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수전공: 문헌정보학

한문 원전의 조선왕조실록보다는 번역본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본 조선왕조실록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이 접근성에서나 생산성에서나 큰 혁신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역사 자료와 역사 연구의 성과물들이 일반 지성들이 접근하기에는 먼 거리에 놓여 있

습니다. 원전 자료를 읽고 연구함은 물론, 그 성과를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여 그 접근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은 이미 시대의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융합적인 인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미 문헌정보 전공 과목으로 ‘뉴미디어’와 ‘UT 세미나(문헌정보학전공진로탐색)’ 두 과목을 1학기에 수강했습니다. 처음으로 타전공 수업을 시도했을 때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노력한 덕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 중 들었던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용은 다른 수업의 공부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수업에 진입하기 전에 코딩과 컴퓨터 활용에 대한 공부를 이번 겨울 방학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3

준비 중인 진로 이야기

공부와 취업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학업을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부의 지식을 심화, 확장시키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취업 여부와 시점이 대학원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쪽을 먼저 하게 되면 현재 재학생 신분으로서는 전공 및 복수전공을 잘 이수하는 것이 당면 목표이고 이와 별도로 영어와 한문 공부를 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추가 목표입니다.

4

후배에게 당부의 말

연습이 허락된 유일한 시간

대학에 입학한 후 들었던 조언 가운데 기억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연습이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 대학 생활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실패할까 망설임 필요도 없고 실수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으니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근육이 되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설령 실패를 맛본다 하더라도 ‘경험’으로 승화시키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세련된 망설임보다 과감한 시도, 이것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내가 들려주고 싶은 조언입니다. 파이팅하세요. 고맙습니다.

후배에게 남기는 글

24학번 서종은

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서종은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왜 문헌정보학 전공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문헌정보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제 고등학교 시절의 관심사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내내 생기부(생활 기록부)에 사회 불평등과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을 정도로 사회 정의, 평등, 통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부터 사회적 불평등, 정보 불평등, 불평등의 대물림, 사회 구조적 불평등까지 정말 많은 불평등 문제에 관해 탐구해 왔습니다. 특히 정보 불평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책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학자가 현대 사회의 정보 격차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사회 불평등은 정보 격차를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였다"라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해결책을 고민해 보다가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도서관은 지역 사회 곳곳에 있으며, 국민이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게 해주는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는 필수적으로 도서관이 있는 것을 볼 때, 국가에서도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이 도서관에 접근하면

할수록, 정보 격차는 줄어들 것이고, 사회 불평등도 완화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4년 동안 고민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제 대학 생활에서의 궁극증과 그에 대하여 찾는 결론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해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

연세대학교의 대학 생활은 어떤가요?

이제 제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대학 생활에 어떤 로망이 있으신가요? 흔히들 대학 생활의 로망 하면 축제, CC(캠퍼스커플), 학생회, 동아리 등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CC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축제, 학생회,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집행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4-1학기에 새내기대표로 일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학생회에 대해서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후배분들께 학생회를 경험해 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학생회는 정말 자율적이고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됩니다. 직접 학생회의 일원이 되어, 과를 이끌고 운영해 나가는 경험은 대학교가 아니면 하기 힘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회 부원들이나 과 학우분들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 동아리 VODKA와 RRC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생활은 학과의 즐거움과는 또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줍니다. 문과, 이과, 메디컬,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부원들과 관심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친밀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 모임이 아니더라도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약속을 잡고 맛

집, 여행을 가거나 축제를 즐기다 보면 가족처럼 유대감,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1학년 신입생분 중에는 중앙 동아리 대부분이 신촌에 있어서 2학년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중앙 동아리를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잘 맞는 동아리와 부원들을 만난다면, 대학생활의 다른 어떤 경험보다 빛나는 경험을 하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기 중에 축제가 실 새 없이 열립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로는 아카라카, 합동 응원전이 있겠지요. 또한, 이것 말고도 대동제, 연고전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이 주관하는 다양한 축제로 하루하루가 즐거우실 거예요.

3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되시나요?

대학생활 동안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며 도서관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 볼 계획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내내 가슴속에 품었던 사회 불평등의 해결이라는 궁극증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이나 인턴십, 대외활동 등도 최대한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제 진로의 종착역은 법조인입니다. 나중에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나 판사로 일해 보는 것이 제 꿈이지요. 이 꿈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졌던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4

후배에게 한마디 남기자면요?

" 후회 없이 송도 생활을 즐겨라 " 입니다. 대학생활은, 특히 1학년 송도 생활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게 송도 생활은 너무나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후배들께서 송도를 어떻게 즐

기느냐에 따라, 송도 유배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즐거웠고, 낭만 넘치고, 나중에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남을 만한 송도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송도 생활은 너무나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낀 행복과 추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제를 즐기고 뒤풀이를 하며 송도 노상 테이블에서 밤을 새워 보기도 하세요. 또 친구들끼리 방학에 여행을 가 보기도 하고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겨 보기도 하세요. 행복한 송도 생활, 학교생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 만큼 했나요? 그럼 후회 안 합니다.

20학번 문수인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20학번 문수인입니다. 저는 지금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며 '조직 문화 및 인사 담당자'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제 경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저 한 개인의 경험담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전공 선택

심리학자의 꿈을 위해!

저는 중학교 시절 또래 상담부 부원으로 활동하며 전문 상담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또래 상담부에서는 다양한 상담 기법을 배우고 학교 친구들이 의뢰한 고민 상담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문제 해결을 도왔다는 뿌듯함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담은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했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꼭 심리학과에 진학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심리학과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학한 고등학교에는

'심리학 연구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상담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 행동 경제학 등 다양한 심리학의 분야를 배우면서 심리학 연구에 흥미가 생겼고 대학원에 진학해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더 깊이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수시 6장을 모두 심리학과에 도전할 정도로 심리학에 대한 애정이 커졌고 지금까지도 심리학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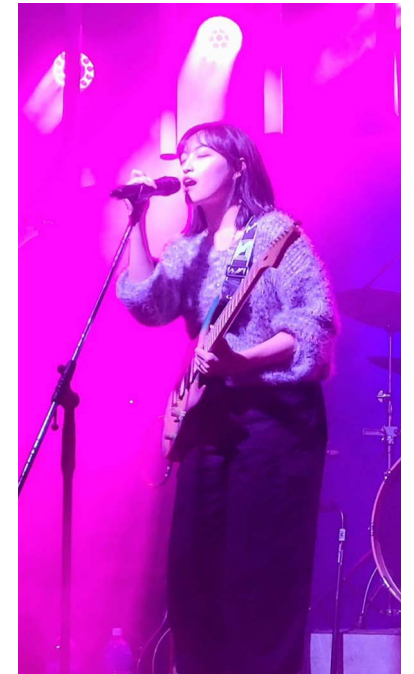
2

대학 생활

와, 진짜 할 만큼 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을 듣는 것이 제 대학 생활의 목표입니다. 제 새내기 생활은 신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송도에서의 기숙사 생활은 커녕 제대로 된 과 활동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구석에서 소중한 스무 살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연애도, 취미도, 교외 활동도, 대학을 다니며 하고 싶은 일 전부 다 하고 후회 없이 졸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좋아하는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심리학과 밴드 소모임 '심공'에 가입해 보컬과 기타, 베이스로 활동했습니다. 노래하느라 공부에 소홀해질까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우려에도 밴드는 지금까지 제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심리학



키보드도 배웠답니다!
 그 다음 하고 싶은 일은 ‘듣고 싶은 수업 전부 다 듣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없는 바람이지만 졸업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기에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원은 제가 선택한 연계 전공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전공인 ‘심리학’ 뿐만 아니라 연계 전공으로 ‘인지과학’을 선택해 관련 과목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전공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나 관련이 있지 취업할 때 굳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

하지만 제가 대학에 와서 애정을 갖게 된 신경과학 분야를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후회가 남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일을 벌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허무하게 시간을 버린 일도 있습니다. 저학년 때에는 재미있어 보이는 활동이 생기면 일단 지원서를 썼습니다. 특히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진행하는 <워크스테이션> 팀에 참여해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여러 워크스테이션 팀에 참여하면서 대표도 맡고 교외에서 하는 활동과 동아리 활동까지 진행하려다 보니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감당하기에 버겁기도 했습니다.

저는 휴학도 1년이 넘게 했습니다. 어쩌면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2021년, 기껏 공부해서 신촌까지 왔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제 청춘이 너무 아까워서 1학년을 마치자마자 휴학 신청을 하고 여행을 다니러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해져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생기고 여행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수능을 앞둔 고3 동생의 뒷바라지와 과외, 아르바이트 뿐이었습니다. ‘다음 달엔 풀리겠지’, ‘그 다음 달엔 풀리겠지’ 막연한 기대만 남은 일상에 익숙해져 기다림의 목적을 잃은 채 그렇게 황금같은 스물 한 살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무사히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었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트랙을 달

심리학

리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며 부족함을 채우고 대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3

진로 선택

뭔가 하고 싶다면? 직접 부딪쳐 봐야지.

적성을 알고 싶다면 직접 겪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흥미와 적성이 서로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처음 희망한 진로는 역시 ‘상담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부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연구 활동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업 외 활동들을 통해 경험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심리학회에 가입했습니다. ‘한국대학생심리학회’에 가입해 아직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심리학 지식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부했습니다. 당시에는 임상 심리학 스터디에 참여했고 꾸준히 논문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학회에는 스터디 외에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실행하여 소논문을 발제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있었습니다. 한국대학생심리학회 외에도 다양한 대상과 주제를 다루는 심리학회들이 존재하니 다양하게 알아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학회 활동을 하면서 ‘대학원 Research Assistant’에 지원하기 위해 교수님들께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RA는 자교 연구실 뿐만 아니라 타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연구실이 RA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2학년 2학기 말에 세 분의 교수님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RA를 아예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연세대학교 ‘정서장애 임상신경과학 연구실’에 합격해 6개월간 RA로 연구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제 학문적 호기심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세상에 부딪쳐 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은 뒤 비로소 알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꿈을 내려놓고 한동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학년 2학기를 마친 겨울방학에는 다양한 분야로 취업한 선배들을 만나며 ‘왜 그 진로를 선택했는지’, ‘대학 시절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인터뷰했습니다. 막연히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저 자신에게 ‘왜 심리학자가 되고 싶었는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처음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적자원관리(HRM)’라는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

어 당장 그 일을 경험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는 2학기에 인턴을 지원하기 위해 빠르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HRM 자격증(한국공인노무사회 인증)’과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을 취득했습니다. 나름 최선의 스펙을 만든 후 일단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함과 당돌함이 시너지를 발휘해 그런 추진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7개 기업 인사팀 및 조직문화 전담팀에 이력서를 넣었고, 운이 좋게도 저의 다양한 경험을 인상적으로 봐 주신 ‘삼일회계법인 조직문화전담팀’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은 제 적성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조직문화 담당자’라는 직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직문화 담당자’가 되기 위해 현재 ‘퍼실리테이션’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두 가지 역량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실리테이션이란 조직 내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회의 방법론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사내 워크숍 등에 활용하기 위해 퍼실리테이션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기존 대외 활동에서 배운 퍼실리테이팅을 보다 전문성 있는 저만의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 ‘인증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소셜벤처 창업학회 ‘YSII’에서 창업 관련 지식을 배우고 있으며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찬란한 대학 생활을 시작하시는 후배 여러분! 사실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 없는 그저 누군가의 ‘희망 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울고 좌절하고 방황한 시간들은 모조리 생략되어 있지요. 이렇게 요약되는 걸 보니 한편으론 힘들긴 했지만 ‘쓸 만하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될 모든 고민과 실패의 시간조차도 생각보다 괜찮은 순간으로 요약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agram | @anstndls52

경제학부 새내기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

23학번 김범준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1학년 상경 10반 김범준입니다. 이렇게 글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 경험들이 거창하지는 않지만 1년 먼저 대학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나의 대학생활

저는 사실 대학에 오기 전 걱정이 많았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오느라 나이가 갓 스무 살 된 친구들보다 세 살 많았거든요. 저는 나이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동생인 친구들이 저를 불편해 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역시 새내기들이 친해지는 데에는 자주 만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 같아요.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술도 한 잔 하며 조금 귀여운(?) 모습들을 보여주니 아무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학기에는 정말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는 만나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매일 아침 9시마다 수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정말 힘들기도 했어요. 2학기에 들어서서 함께 다니는 친구들과는 어느 정도 친해졌고 또 교내 튜터링 사업에 2개나 참여하느라 더욱 바빠져서 지금은 알바, 수업, 공부를 병행함과 동시에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내며 입학 전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잘 적응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며 즐겁게 보냈지만 지난 학기에는 미시경제원론, 경제수학, 통계학입문, 기독교와 현대사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등 수업도 다소 빡빡하게 들으며 최대한 졸업 요건을 많이 채우려 노력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 수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직 잘 느낌이 안 오실 건데요. 지난 학기에 들은 다섯 과목 중 기독교를 제외한 네 과목은 모두 부담이 큰 과목이라 나름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무사히 잘 해냈습니다. 학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교수님의 수업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은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고 시험 문제를 내시니 선생님이 절대적이셨죠. 물론 대학 과목도 그런 과목이 있지만 수학이나 통계학 등은 세계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꼭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3B1B, ASDF오터의 통계, 공돌이의 수학노트' 등 정말 좋은 유튜브 채널이 많으니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전공 선택 이유

대입 원서를 지원할 때 고민이 참 많았어요. 경영을 써야 할까, 경제를 써야 할까, 응용통계를 써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경제를 골랐어요. 제가 원래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중에서도 통계나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계량 경제학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경제를 골랐어요. 궁극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고요. 또 진로가 정말 다양하기도 해서 고른 것도 있어요. 지금의 제 목표인 경제대학원 말고도 한국은행이나 금융 공기업에 입사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증권사 IB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종종 계량 경제학을 살려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과학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행정고시는 말할 것도 없고, 회계사나 로스쿨로도 많이 진출하는 학과예요. 이처럼 플랜 A 말고도 플랜 B, C가 잘 되어 있는 학과라 실력 진로가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 경제학과에 확신을 갖고 지원했어요.

준비 중인 진로 이야기

저는 지금 경제학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 현상을 계량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또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분야라 제 성격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고 박사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학교에서 석사까지 한 후 미국 박사 과정에 진학해요. 국내 박사보다는 해외, 그중 미국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대부분이고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 가면 박사 유학 성과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거 같아요. 경제학 연구라고 하면 크게 이론과 실증으로 나뉘어요. 이론 경제학은 수학이나 기존 경제학의 이론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분야예요. 실증 경제학은 통계적 방법론(계량 경제학)을 이용하여 이론을 검증하고 사회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요. 예를 들어 최저 임금이 1% 상승했을 때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증 경제학을 연구한답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진로가 다양해요. 미국에 남는다면 학계(연구소, 대학 등)에 남을지 아니면 인더스트리(빅테크 같이 시중 기업)로 갈지 골라야 해요.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보통 학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개발 연구원(KDI), 한국은행, 조세 연구원과 같은 기관에서 연구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대학 연구원이나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학 연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KDI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리포트를 읽어보거나 DBpia에 접속해서 경제학 논문을 찾아보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논문을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KDI Focus를 읽는 것도 좋을 거예요. 논문을 요약하고 보기 좋게 정리해 두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유학을 생각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토폴 응시료, 원서비 등은 어쩔 수 없지만 박사 과정은 Stipend라고 하는 생활비 장학금이 들어와요. 뉴욕 같은 대도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지만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준다고 해요.

후배에게 당부의 말

첫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면 좋겠어요. 아마 고등학생 때까지의 여러분들은 동질적인 집단에서 살아왔을 거예요. 비슷한 동네, 비슷한 배경... 마지막으로 대입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지요. 물론 우리 학교 학생들도 동질적인 면모가 있지만 그래도 중고등학생 때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는 대입이라는 목표가 사라지고 각자의 목표를 향하는 만큼 살면서 처음 '나와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키워 나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마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워 보세요.

둘째로 진로 탐색에 대해 '조급하지 말되 게으르지는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갓 스무 살 또는 몇 번의 추가적인 도전 끝에 연세대학교에 온 여러분, 철이 조금 든 고등학생 시절 '내가 20년 뒤에 뭐 해 먹고 살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있더라도 그 깊이는요? 아마 몇 번 없고 깊이도 피상적인 수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로에서 갈팡질팡한 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로를 설정하는 데에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는 벌써 진로를 정하고 나아가는 거 같다고 여기며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1학년 새내기니까 지금의 혼란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부터 탐구해 나가면 되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만큼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드라마나 기사에서 접할 수 있는 직업의 모습을 넘어서서 탐구해야 해요. 국제캠퍼스나 신촌캠퍼스에서 종종 현직자 강연을 진행해요. 꼭 참석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해 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차근차근 찾아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꼭 '링크드인'을 가입하기를 바랍니다. 링크드인은 구인·구직의 인스타그램이에요. 특히 외국계 회사가 링크드인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관심 가는 분야를 검색하면 여러 구인 공고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공고를 보면 Job description이 정말 자세히 적혀 있으니 잘 읽어 보면서 '이 분야, 이 직무는 이러한 능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꼭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학년 학사 지도교수님은 여러분의 대학 생활 적응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학과 선배들을 통해 받으신 정보 등을 토대로 우리들의 진로를 잘 정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사실 진로를 정할 때 다소 막연하고 피상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꼭 한번쯤은 면담을 해보세요. 진로 외에도 학업 계획이나 장학금 등 우리가 처음 대학에서 마주하는 고민들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꼭 학사지도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남학생들에게는 ‘군대로 인해 지체되는 시간’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군대 갔다 오면 여학생들은...’으로 시작하는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정말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물론 1년 6개월 고생하는 건 아주 힘들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년 늦는다’라는 마인드를 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며 ‘늦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페이스로 달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부대마다 다르고 선임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상병정도 되면 간단하게 독서, 영어 정도의 공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몸도 마음도 힘든 곳이겠지만 짧은 일과 시간에 짬이 생긴다면 간단하게나마 미래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시기

19학번 이준석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19학번 이준석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공 자율 선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후배님들의 전공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경제학 혹은 응용통계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상경 계열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단순한 흥미 혹은 호기심에서 진학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입학 당시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경제학 관련 서적을 찾아 읽는 등 학문에 대한 관심은 꽤 가지고 있었으나, 그와 동시에 대학 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스스로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순히 경제학이나 응용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대학생활 중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1

RC 창의플랫폼

창업을 간접 체험해보다

1학년 때 송도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 RC 창의플랫폼에 참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RC 창의플랫폼은 팀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대회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팀은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RC 창의플랫폼에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간접적으로나마 창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 모집부터 기획, 설문조사, 디자인, 어플 제작 등 모든 과정을 겪어 보며 실제로 창업을 한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유사한 목표를 가진 동기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플 개발을 하기 위해 여름방학 중 송도에 남아 밤낮으로 코딩 강의를 듣고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팀원들과 몰입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회에 참여한 다른 팀들의 결과물을 보며 높은 수준의 완성도에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꼭 창업에 뜻이 있지 않더라도 두 학기라는 긴 시간 동안 RC 창의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기에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2

창업지원단 스타트업 인턴십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다

RC창의플랫폼을 마친 후, 창업 생태계에 대한 실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하게 합격하여, 네이버와 카카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증강현실 관련 스타트업에서 2학년 여름방학 동안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잠시 떠나 새로운 기업 조직에 합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와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창업을 하신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우연히 경쟁사 및 유사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의 제품과 사업 모델을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회사의 홈페이지와 마케팅 자료 등을 조사하며 기술과 제품을 이해하고, 각 회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사업

을 운영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 분석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것이 유일한 계기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 분야로 진로를 확정하는 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관련 자격증인 CFA Level 1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결정에도 이 경험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3

NYU Stern

교환학생을 다녀오다

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긴 후, 관련 공부를 보다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교환학생을 계획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금융 분야에 특화된 학교인 NYU Stern 경영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수학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세계 각국의 우수 대학들과 교환학생 협정을 맺고 있으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국가에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자립심을 키우고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과 교류하며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적으로는 전문적이고 실무에 가까운 수업을 수강하며 금융 관련 기초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Private Equity Finance 수업이 인상적이었는데, 사모펀드라고 하는 투자기관의 투자 과정을 따라가며 기업가치평가 방법론 등을 학습하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엑셀 모델링 기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Harvard Business Review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는데 재무적인 부분까지 깊이 토의가 진행되에도 각자의 인턴십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았습니다. 금융 분야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 방향성이 유학이든 취직이든 다시 해외에서 생활할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교환학생 기간은 저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학부 글로벌 금융환경연수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홍콩을 방문하다

금융권 및 해외취업을 진지하게 고려하던 시점에 경제학부 선배님의 후원을 통해 진행되는 글로벌 금융 환경 연수에 좋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으로 초청을 받아 4박 5일 동안 아홉개의 글로벌 금융 회사를 방문하고 홍콩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과 교류하며 금융 직종의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특히 홍콩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직종들을 알게 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콩 방문 이전에 두 차례 금융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홍콩에 머무는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분들을 만나 보며 세상은 제가 알던 범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 해외취업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에, 후배님들께서도 만약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글로벌 금융 환경 연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글을 적다 보니 다소 두서없이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생략된 부분도 많지만 대학 생활 동안 제가 참여했던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것들이 진로 탐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간략하게나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기회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후배님들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조금만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면 주변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공 자율 선택 제도가

시행되어 입학하는 첫 학번인 만큼 후배님들께서도 능동적으로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내기가 되어도 다시 응용통계학과로 오고 싶은 이유

19학번 신재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응용통계학과를 아직까지도 재학하고 있는 화석 선배 중 한 명입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 보니 화석이 되었는데 그동안 학교를 다니며 쌓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

전공 선택 이유

저는 고등학교 시절 크게 목표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다짐이나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욕망조차 없었으며 그저 평범하게 학교 다니다가 졸업해서 일하는 삶을 꿈꿔 왔습니다. 그렇기에 과목들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과목보다는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과목인 수학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전공을 찾아보니 다른 학교들은 통계학과이지만 연세대학교만 ‘응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응용통계학과가 있었습니다. 흥미롭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였는데 이 선택이 제가 가졌던 꿈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은 사라졌으며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통계학에 대한 재미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나의 대학생할

저의 대학 생활은 군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운 좋게 코로나를 피했지만 2학년 때에는 코로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학년인 지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은 크게 없었습니다. 학점도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놀기만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 군대에 가야 했고 전역한 다음에 쉬지 않고 복학을 노렸지만 학기를 진행하면서 전공공부의 기초가 부족해서인지 오히려 적응을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뜻처럼 잘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저는 중도휴학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제 자신의 생활을 돌아켜 보니 저는 후회없이 놀았다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는 이루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까지 열심히 전공공부에 노력을 쏟아부게 만든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복학 후 가장 큰 목표는 전공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강의는 강상욱 교수님의 표본추출이라는 강의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엄중히 임했더니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곤 했던 수업 내용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으며 관련하여 심지어 궁금한 부분들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며 전공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수님들께 여쭙보면 친절히 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대학원에 큰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자신 없었던 학회에도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붙어서 활동도 수월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에 들어가면서 학부 전공 수업들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실전 데이터에도 배웠던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어서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다. 학회에서 쌓았던 경험들은 전공 공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 덕분에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전공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 활동 이후에는 랩실 인턴 활동도 시작하였습니다. 학회에서는 세부적으로 안 배우고 알게 지식을 얻었다면 인턴에서는 제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학원 맛보기 경험이 되어 새로운 시각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 중 세 학기는 공부 이외에

모든 것을 해보았기에 늘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낸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살아왔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진로 이야기

통계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꼭 접하게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신 선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부 때 배웠던 것들을 대부분 활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혹은 진행되는 방식이 학부 때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더 배우거나 취업 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대학원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시 대학원에 돌아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대학원 생활은 어떨까요? 학부과정에서는 ‘응용통계학과’지만 대학원 과정은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통계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대학원생은 논문 한 개를 작성, 혹은 과제를 하나 진행해야 하며 대학원 수업을 총 30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인 만큼 수업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많기 때문에 학비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좋은 여건지만 대학원 생활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다들 가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학부과정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데이터 분석가로서 생활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실제적인 연구경험을 풍부하게 쌓을 수 있어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석사학위과정을 추천합니다. 대학원 이후에는 저 역시 매우 많은 것들이 고민이며 박사 혹은 취업의 길이 남았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주변인들의 말로는 본인이 공부 혹은 연구를 더 하고 싶다면 박사, 그것이 아니라면 취업을 대부분 선택한다고 합니다.

4

후배에게 한 마디

전공을 고르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적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잘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일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입학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시면 전공에 대한 맛보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금 보시는 자료와 비슷한 자료를 찾는 것 또한 가능하기에 해당 자료들을 공부하시면서 전공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통계는 어디에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혹은 어떠한 글을 쓸 때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할 때 통계자료는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통계는 배워두면 진로를 혹시 바꾸게 되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과 코딩 실력을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해도 절대로 늦지 않으며, 오히려 차근차근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미리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통계학입문’이라는 수업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하며 교재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학교의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만든 연세대학교 프리미엄 인터넷강의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통계학의 본질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책들을 추천합니다.

- 괴짜 통계학
- 통계의 미학
- 벌거벗은 통계학

이러한 책들을 통해 통계학이 재미있는지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전공공부를 미리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학에 대한 재미를 상당히 늦게 알게 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느꼈던 통계의 재미는 바로 통계학은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과학이라고 한다면 물리, 화학, 생명 등을 고려하지만 통계학은 보통 과학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

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에 대한 것을 추론하는 것이 통계학이기 때문에 과학이며 저는 이것이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데이터에도 적용시켜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재미도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학년 때는 조금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좋고,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점관리는 꾸준히 해야지 나중에 고생을 안 합니다. 진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아직 올바른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만들어 낸 선택을 함으로써 나중에 후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찾는 여정

연세대학교가 나에게 준 성장의 기회

20학번 김도연

1

전공 선택의 이유

기업 경영에 대한 관심

고등학교 시절, 어떤 전공이 저에게 잘 맞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도, 유독 잘하는 과목도 없었던 저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카페를 운영하며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음료에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우리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한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이 기업 경영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학을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

국제캠퍼스 RC 창의 플랫폼에서 배운 도전과 협업의 가치

저의 대학교 생활의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발견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RC 창의 플랫폼은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 기부 천사라는 팀으로 결식 아동을 위한 기부 플랫폼을 제작한 경험은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팀원들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 그 해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장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을 현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제안서 작성부터 익숙하지 않은 앱 개발, UI/UX 공부를 하며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대학 생활, 특히 처음 만나는 팀원들과 함께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많은 경영학과의 수업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로 이야기

전공 분야 학회 활동과 회계학에 대한 깨달음

2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이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2학년 2학기를 보내던 저는 여전히 경영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전공 수업들 중에서 전공 기초 수업 3개만 들었던 저는 경영학에 대해 더 빨리,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시기에 Junior Scholar Club(JSC) Business라는 학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JSC Business는 경영학 전반을 다루며 회계, 재무, 마케팅, 매니지먼트, ODI 등 여러 분야의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학회입니다. 매주 다른 주제의 논문을 읽고 학회원들과 토론하면서 경영학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있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논문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몰랐지만 각 세션에 참석하신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으며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구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JSC Business 덕분이었습니다. 회계는 경



영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학부에서의 회계 수업은 분개와 계산에 집중되어 있어 조금은 지루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JSC에서 접하게 된 Shyam Sunder 교수님의 Theory of Accounting and Control을 읽고 회계학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의 수업과는 달리 JSC에서 접했던 회계학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대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주주, 경영진, 외부 이해 관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학문이었습니다. JSC 활동을 통해 회계가 경영의 언어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회계학을 연구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회계학을 연구하고 싶다는 목표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계학 연구는 회계 지식을 넘어서 경제학적 사고와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계학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 문제, 기업의 정보 공개, 투자자의 의사결정 등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제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미시경제학, 게임이론, 계량경제학 등 회계 연구에 필수적인 경제학 지식을 쌓았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있던 경영학 공부와 다르게 경제학 공부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수리적 분석과 경제학 이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 회계학 연구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접하면서 공부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통해 저는 회계학 연구에 필요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최우등상과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대학 생활 동안 쌓은 경험과 성과가 석사 과정의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4

후배에게 한마디

\저는 후배들이 대학교 때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 관계와 협업을 경험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쌓기를 권합니다. 동아리, 봉사 활동, 송도 생활, 친구들과의 여행 무엇이든 다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도 교환 학생 동아리 연세 글로벌에서 3학기 동안 활동하면서 교환 학생 친구

들과 글램핑도 가고 전시회도 다니면서 다른 나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매달 빵 만들기 봉사 활동을 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노천 극장에서 아카라카를 즐기기도 했고 동아리 MT를 다녀오고 도서관 뒤 벚꽃 아래에서 친구들과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현재 석사 생활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보낸 4년간의 대학 생활은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소중한 지식과 경험도 안겨 주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도 주었습니다. 저는 석사 생활이 끝나면 미국으로 박사를 진학해 회계학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길 바라면서 하고 싶은 것들 모두 다 해 볼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학과에서의 여정과 진로탐색

22학번 남수현

1

내가 수학과를 선택한 이유

제가 수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수학의 논리성과 순수함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이전까지 수학보다는 과학에 훨씬 흥미가 많았던 제가 수학과로 진학하게 된 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세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은 일념으로 과학을 깊게 공부할수록 마음 한편에는 과학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었습니다. 당시의 제가 바라보기에 과학은 세계의 단편만을 기술하는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확실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언젠가 변동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정확성과 확실성에 대한 갈망은 저를 수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형식적인 수학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관심사와 초점이 바뀌니 수학은 무엇보다 매력적인 학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학은 교과서에서처럼 수식이나 이론만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세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성을 지닌 학문이며 무엇보다도 정확한 토대 아래 세워질 수 있는 학문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참인지는 분명히 확실치 않지만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한 확고한 토대를 찾는 길에서 가장 가까운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매우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방대한 수학의 체계 속에서 새로운 이론을 증명하고 응용해 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해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깊은 학문적 탐구를 하고자 하는 열망에 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

나의 대학생활

수학과에서의 일상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적용시켜 저의 수학과에서의 생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상의 관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환경의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에서 저의 대학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측면에서 수학과에서의 학문적 경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1학년 때부터 다른 학과보다 심화된 수준의 수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2학년 이후에는 대수학과 해석학 등 여러 수업을 통해 수학적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학과 교수님들 중 해석학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해석학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해석학 분야에서의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고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학과에서는 학술 행사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학술적인 교류와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연구 동향을 접하고 동기들과 토론을 나누며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학과 내의 연구 풍토가 수학의 엄밀한 확실성보다는 직관과 응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세대학교 수학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미권 수학계의 주요 연구 방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수학의 응용 가능성을 넓히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지만 수학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중요시하던 제게는 다소 아쉽게 다가온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환경의 관점에서 수학과는 다른 학과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매우 넓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선후배 간의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 이것이 수학과만의 본래적 특성 때문인지 아니

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입학 전 미디어에서 보았던 활발한 대학 생활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수학과에서는 수업 관련 과제를 함께하기보다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조별 과제나 팀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곧 장점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별 과제나 레포트 작성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간 관리가 가능했고 타인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었습니다. 또한 1~2학년 때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강의와 과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오히려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수학과와 환경은 흔히 떠올리는 이공계 대학 생활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르며 인문계 대학 생활의 이미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진학을 고려하는 후배님들이 수학과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지 고민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3

수학과와의 진로 이야기

수학과에 진학한 후 진로에 관한 고민을 갖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은 어디에든 응용될 수 있는 기초 학문의 성격이 강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선배들이 많습니다. 수학과와 다양한 진로에 대하여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철학을 복수전공하여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선 문단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저는 수학과와 응용 중심 풍토에 다소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확실성과 진리에 조금 천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철학과로의 진학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아주 드문 케이스이지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배들의 경우 아주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학과와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비단 순수·응용 수학을 전공하여 수학과에 진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처럼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하여 다른 학과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도 많습

니다. 수학이 쓰이지 않는 학과가 드물다보니 수학과에서 학점이 괜찮은 학생을 대학원에서 선호하는 경향 또한 있어서 학생들이 자주 선택하는 진로입니다.

일반대학원에 가지 않는다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학사 취업을 준비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직 시험의 경우 전공과 거의 무관한 경우가 많아서 수학과에서 특별히 득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학을 공부하면서 쌓인 논리력과 사고력이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CPA나 보험 계리사 등을 준비하는 사람이 비율상 많은 편입니다.

학사를 졸업한 이후 취업을 한다면 복수전공이 반 필수적입니다. 공과대학을 복수전공하여 제조업·중공업 등의 분야에 생산직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아니라면 상경계열을 복수전공하여 사무직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외에는 수학 전공을 살려 수학 교사로 교직 이수를 하거나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기도 합니다.

수학과와 다양한 진로 가능성은 여러 넓은 길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길을 잃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학과에 진학을 희망한다면 미리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후배에게 한마디

수학과를 선택한 여러분에게

수학과에 진학한 후배 여러분 수학과에서의 학업과 진로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겨낸다면 그만큼 얻는 것도 많은 분야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든 순간이 많겠지만 끈기와 열정으로 도전하다 보면 그 성과와 성취감은 여러분을 더욱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수학이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논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수학의 매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학을 잘 활용하는 능력은 여러 분야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컴퓨터 공학, 데이터 과학, 경제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수학적 사고와 접근법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이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은 앞으로의 삶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수학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학적 여정에 성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완벽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22학번 김해성

1

물리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어린 시절 저는 수학 도둑이라는 만화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학을 통해 우리는 양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양탄자가 어느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을 읽고 나서 저도 그 등장 인물들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온 ‘속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통해 물체가 움직인 시간을 알면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만화 속 이야기처럼 양탄자가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여도 이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리학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서 동네 서점에서 물리 문제집을 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특히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내가 이 학문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꼈던 짜릿한 쾌감과 물리학을 공부할수록 점점 더 느껴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저를 더욱 물리학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물리학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고 결국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학교생활 이야기

저는 1학년 송도 생활 동안 시험 2주 전까지는 수업만 성실하게 듣고 그 외의 시간에는 친구들이나 동기들과 술을 마시거나 학과와 학교 행사에 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부터는 그동안 들었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연습 문제를 풀며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과 행사나 학교 행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관된 학업 중심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부만 하다 보니 성적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쳐 버렸습니다. 공부는 원래 흥미롭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상 심리만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전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RC101 시간에 물리학과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난 후 더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교수님께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은 “훌륭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일관된 방식으로만 생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학교나 학과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회에서 기획하는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행사 준비를 돕는 사람들의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학생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과 선배님이 새내기 대표단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고 저는 새내기 대표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당선되어 1학년 동안 새내기 대표로서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예전처럼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관련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부할 때

물리학과 학우분들의 진로

는 공부하고 놀 때는 즐기며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새내기 대표단의 직책을 넘어서 학생회 활동을 직접 기획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가장 친하게 지낸 동기와 함께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2학년부터는 학생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학년 신촌 생활은 1학년 송도 생활보다 학업과 학생회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때와 달리 2학년부터는 전공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학업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시험 기간 외에도 학생회장으로서 학과 행사를 기획하고 관리하며 여러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는 직접 행사와 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학생회 활동에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 동안 밀도 있는 생활을 이어가다가 학생회장 임기를 마친 후 저는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물리학과 내에서 물리학에 대한 소통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직을 사퇴한 후 연세대학교 유일의 물리 학술 동아리인 SCC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SCC 회장으로서 줌터디 활동(줌(Zoom)을 활용한 스터디 활동), 세미나 개최, 스터디 및 튜터링 활동 등을 기획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리학과 전공을 선택한 학우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은 크게 핵, 입자, 천체 물리학, 응집물질물리학, 응용물리학의 3가지 주요 분야로 나뉩니다.

핵, 입자, 천체 물리학 분야는 물리학의 원론적인 부분을 깊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모두 수학적인 역량을 요구하는데 특히 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분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물리학과와 함께 수학을 복수전공하거나, 수리 물리학과 같은 수학 강의를 추가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 분야에서는 입자들

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예측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싶다면 이 분야의 대학원을 추천합니다.

반면 응집물질물리학과 응용물리학은 최근 물리학과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물질의 고유한 물리적 성질을 연구하거나 이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소재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ARPES 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물질 내 전자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거나 TEM, STM, AFM 등의 장비를 활용해 물질 표면의 미세 구조를 관찰합니다. 또한 전기 소자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FET 트랜지스터에 새로운 특성을 가진 물질을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이나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이 분야의 대학원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해 기존의 암호 체계를 빠르게 해독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많은 입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Many-Body Problem 연구와 같은 계산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리학과에서 습득한 수학적 역량과 물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퀀트 분야에 진출하는 학우들도 많습니다. 최근 퀀트 분야에서는 양자 역학의 기본 방정식인 슈뢰딩거 방정식을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역학에서 배우는 볼츠만 분포를 활용해 주가를 예측하거나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나 컴퓨터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물리 엔진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모델링을 제안하며 전기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리학과와 관련된 다른 진로를 선택한 학우들은 변리사나 변호사와 같은 문과 전문직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물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 재산권 분쟁이나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기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다른 학우들은 물리학과 관련된 이슈를 기사로 다루는 과학 기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대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은 고등학교까지 배운 물리학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는 물리학을 통해 세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배우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역학을 배우면 세 개 이상의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양자 역학을 배우면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물리학은 물리학 외의 능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물리학은 개념 자체보다는 그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복잡한 적분을 풀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문제의 모델링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모델을 해결하는 과정은 복잡하거나 계산 프로그램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학우들은 물리학의 어려움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학우들은 그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차 ‘근사’라는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허용 가능한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근사’를 이해하며 수학적 테크닉도 성장합니다.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나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적 기법들이 점차 익숙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틀리고 발상이 막혀 답안을 들여다보는 등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낸다면 더 높은 수준에서 물리학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뇌와 고민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미 거쳐 온 과정입니다. 그들은 수학적 도구를 고안하여 해결하지 못한 모델을 풀었고 기존의 관념들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출했습니다. 물리학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분석하는 도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겪어온 진보의 과정과 고뇌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며 함께 협력하여 공동

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펜 자국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와 성장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질의 근본 성질에서 출발해 다양한 응용 분야까지

화학과 전공과 진로 이야기

22학번 이민정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학과 3학년 이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화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또 저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전공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제가 생각하는 화학과란?

화학과는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은 물질의 근본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 저는 관심 분야가 뚜렷하지 않았기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화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관심사를 찾아가는 중이지만 화학이 물질의 근본적인 성질을 다루다 보니 자연과학과 공학의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어 현재 전공에 매우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학은 다른 학문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화학을 복수전공 하거나 화학과에서 다른 과를 복수전공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전자 소재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고자 전기전자공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데 두 전공이 어떠한 접점을 갖고 있는지 각 분야의 지식을 서로 어떻게 보충해 줄 수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

화학과는 무엇을 배우나요?

화학과에서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분야는 강의 수업과 실험 수업 모두 전공필수로 지정돼 있는 만큼 화학의 기본이 되는 분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화학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탄소 화합물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이자 의약품, 천연물 등 여러 소재로 쓰이며 특히 그래핀과 같은 탄소 기반 나노 물질은 독특한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어 전자공학,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기화학은 금속 화합물이나 비탄소 기반 물질을 주로 탐구합니다. 물질 간 결합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염기 화학, 분자의 대칭성, 배위화학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촉매나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가 되는 학문이어서 요즘 이산화탄소 포집, 재활용 같은 친환경 소재에도 활발히 응용되고 있습니다.

물리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며 열역학, 반응 속도론, 양자역학 등을 다룹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물질의 근본적 성질을 수식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석화학은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리하고 정량 분석하는 법을 배우는 분야입니다. 화학 실험을 하거나 물질 분석 기기를 사용할 때 기반이 되는 유용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과목들을 배우고 나면 나중에는 전공 선택 수업을 통해 생화학이나 신소재 등 여러분이 더욱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택해 공부할 기회도 많을 것입니다.

3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나요?

화학과의 진로는 연구직, 산업계, 교육계 등 정말 다양합니다. 많은 화학과 선배님들께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기도 하고 화학을 응용한 신소재, 환경, 바이오 등 여러 산업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교육 분야로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화학과에서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학원에 들어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쌓으면 이후에 연구소, 사기업 또는 공기업에서 더욱 주도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희 학과에는 고분자 나노소재, 친환경 무기 분자, 초고속 레이저 분광학, 전기분석화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로 진출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4

나의 대학 생활

저의 지금까지의 대학생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떠오르는 한 가지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우연히 '연세-넥슨√i RC 창의 플랫폼'이라는 교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팀으로 구성된 친구들과 환경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 밖에서도 유엔 한국 대학생 대표단, 환경 NGO 단체 서포터즈 활동 등을 해오며 앞으로 저의 전공 지식을 활용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관심 있는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소재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화학과 연구실에 학부생 인턴으로 들어가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차세대 태양 전지 소재로 응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연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관련

논문을 읽고 선배님들의 실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즐겁고 열심히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구실에서 선배님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일상도 대학생활의 즐거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진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대학생활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저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5

후배님들께 한 마디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으시면서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의미 있고 멋진 대학 생활 보냈다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글이 화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느 길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멋있는 사진은 아니지만, 화학과 연구실에서 여름 방학 실습을 할 때 찍어 두었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만든 단위 두께의 전극들을 꽂아서 보관하던 박스인데, 저희끼리는 그냥 화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전공이해와 진로탐색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보자

23학번 문지욱

1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지구시스템과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탐구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해가 하루 동안 움직이며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며 시간이 흐르는 것과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의 신비와 변화무쌍함에 큰 매력을 느꼈고 그런 관심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관심이 지금의 지구시스템과학과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는 지구시스템과학과와 다른 공학 계열 전공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학 계열은 취업과 현실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고 주위에서도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제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실적인 조건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과 타협하기보다 제 마음이 끌리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는 지구의 구조와 변화, 그리고 자원에 대해 탐구하는 다양한 학문을 다룹니다. 특히 지질학과 연관된 과목을 배우면서 지각 변동, 지층의 형성 과정, 화석과 광물 등

지구의 역사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저는 이 학문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의 근본적인 출처와 생성 원리에 대해 탐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구의 구조를 이해하면 자원 개발과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지구과학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학문을 통해 얻은 탐구심을 바탕으로 지구시스템과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전공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 지구의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2

나의 대학생활

대학생활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도 캠퍼스에서의 신입생 시절이며 두 번째는 신촌 캠퍼스로 올라와서의 2학년 시절입니다. 각각의 시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전공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송도 캠퍼스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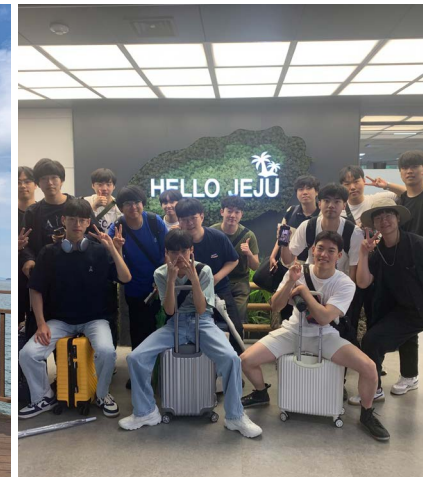
1학년 때는 새로움과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송도에서 신입생으로서 지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에 초반에는 다소 긴장되었지만 금방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학과 사람들과의 친목을 쌓고 선배들과의 밥약(식사 약속)을 통해 선배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특히 지구시스템과학과 선배님들이 송도로 방문해 밥약(식사 약속)을 해주셨던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덕분에 학과 선배님들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친근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학기 초에는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학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학술’이라는 단어가 다소 무겁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학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주는 이로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대학 생활과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송도에서의 생활 자체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한 학기, 두 학기를 생활하면서 부담감도 있었지만 다양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야식을 먹으면서 학업 고민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창의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창의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필요한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 동아리 MT



2024년 2학기 동아리 지질답사

2학년 신촌 캠퍼스 생활

2학년이 되면서 신촌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캠퍼스 환경의 변화는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과 동기와 룸메이트가 되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생활 패턴과 습관이 비슷한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더욱 편안하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공 수업의 깊이였습니다. 1학년 때는 개론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주제를 알고 넓게 배웠다면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 심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촌에 와서는 동아리 활동에도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송도에서 신촌으

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스케이트보드 동아리나 무선 통신 동아리 등 관심 있는 동아리에 쉽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고 모르는 학과 선배님들과도 만나며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외에도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에 나가보거나 계절 학기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창업 관련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통해 얻은 것들

대학 생활은 전공 공부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통해 지구의 구조와 변화, 자원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배우며 제가 지구시스템과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 선배님들과 교류하며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과 전공 지식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술동아리, 창의 플랫폼, 창업 지원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저의 시간이 후배들에게도 유익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진로 이야기

진로에 대한 고민은 대학 생활 중 누구나 마주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아직 진로와 취업에 대해 경험이 많지 않지만 지구시스템과학과에 속해 있으며 진로 탐색을 꾸준히 해 온 사람으로서 느낀 점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진로 방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원 진학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이 하나의 좋은 선택지입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의 경우 지질학과 지구과학 분야에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연구 인프라를 자랑하는 만큼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대학원은 학과 내에서도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교수님들 또한 학부생들에게 진로 상담이나 연구 방향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탐구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 기반 직업에 도전할 기회도 생깁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하고 싶은 진로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업 취업

흔히 이과, 자연대의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지구시스템과학과는 지구 자원의 탐사와 개발,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생각보다 넓은 진로 선택지를 가집니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 탐사와 채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자원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으며 자원 탐사와 채굴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 기관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도 지구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직무가 요구되므로 공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변리사는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지만 일반 소송은 맡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와 변리사가 어떤 관련이 있냐고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지구과학과 관련된 특허나 기술의 발명이 있다면 이 분야의 지식을 가진 변리사로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자원 및 지질 관련 특허와 같은 전문 지식을 요하는 영역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지구과학 전공자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진로입니다.

창업

창업은 누구에게나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이 지닌 전공 지식과 창의력을 결합해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자원 관리나 환경 보호,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같은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장점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경험을 쌓아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4

후배에게 한마디

저는 아직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 본 것도 아닌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님들께 전하고 싶은 두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맞게 절제된 행동을 하되 무엇이든지 시도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행동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자 나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는 가장 큰 방식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행동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항상 신념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평생 해도 모자라다고 할 만큼 꾸준한 과정이지만 일찍부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시도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한 많은 경험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대학 생활은 단지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는 소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학에 가면 수많은 활동과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하고 싶은 일들에도 도전할 기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웬만하면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활동이 지금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경험이나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언젠가 유용한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은 “후회하지 말아라. 그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었다.”입니다. 이 말은 저도 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사소한 일부터 몇 년 전의 선택까지 자주 돌아보며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지금의 관점에서 본 것이지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후회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는 후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줄 도구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로 인하여 과거에 매여 있기 보다는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학기 합동응원전



2023년 지구시스템과학과 지질답사

인생에서 한 번 쓰는 나의 대학 일기, 한 번쯤 미쳐봐도 좋지 아니한가?

18학번 이지원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18학번 이지원입니다. 올해 2월 졸업하여 본교 대학원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2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연세대 전기전자과 선배로서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것이 정말 영광이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의 대학 생활을 주제로 가볍게 시작해서 전공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 보려 합니다. 훗날 대학을 다니다가 이전에 선배 글에서 봤던 내용이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보람찰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공대에서, 아니 어쩌면 사회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로 운 사회운동가' 유형인 ENFJ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감하며 챙겨주는 성격 덕분에 대학 시절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

나의 대학 생활, 세 가지 커다란 인연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흑수저 대결에서 안성재 셰프가 참가자에게 한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셰프는 좀 돌아야 돼. 한 번도 안 돈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물론 살짝 주눅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이 20대 청춘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학 시절 동안 무엇에 미쳐 있었을까요? 내심 학술적인 것을 기대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기

타에 미쳐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쳐 있었을까요? 저는 4년간 크고 작은 33건의 무대에서 총 142곡을 연주하였습니다. 갑자기 취미 얘기가 왜 나올까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타와 밴드에 미쳐 있었던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스무 살,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하고 저에게 세 가지 커다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토록 다양한 연령대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어 볼 수 있을 것이라 상상도 못 했는데 중앙밴드동아리 올림피아에서 1년간 회장으로서 여러 행사와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어쩌면 공대생 학우들과만 어울렸다면 못 들어봤을 법한 인생 경험, 실패와 성공의 사례를 공유하며, 음악이라는 하나의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끈끈해졌던 인연들로부터 배운 점들은 저에게 정말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입학하신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에는 우수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종합대학으로서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동아리에서 만나 우연히 유사한 관심 분야를 가진 선배와 함께 스타트업 팀을 이루어 활동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새내기 추억을 함께한 학과의 동기 선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설레는 마음을 가득 품고 연세대에 입학하셔서 학과 동기들과 선배들을 이미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스무 살이 되어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맺은 첫 인연이 바로 일렉텐입니다. 그 어느 대학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아카라카, 연고전, 그리고 각종 과 행사를 함께하고, 전공 수업 과제 및 프로젝트를 밤새 해결했던 동기들은 언제나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밴드 음악이라는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공연도 하며 많은 추억을 함께한 파워케이블 동기와 선배님들은 언제 보아도 어색하지 않은 소중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과 진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도록 자극을 끊임없이 주는 세 번째 인연은 명예 학회입니다. 선배들 간의 소통을 중요시 여겼기에 비교적 이른 학년에 명예학회에 지원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튜터링 및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아는 전공지식을 다른 학우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술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쌓은 덕분에인지 졸업한 이후에도 활발히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나 인생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기전자공학과에 진학한 이유

이렇듯 사람과 어울리고 서로 챙겨주기 좋아하는 제가 전기전자공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 일까요? 저는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순간에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나는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고 있을까?’ 중학교 1학년 때, 좋아하던 밴드였던 ‘MUSE’가 낸 새 앨범의 표지에는 독특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다른 아닌 인간의 뇌지도였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크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Human Connectome Project’에서 비롯된 해당 뇌지도에 대해서 더 찾아보다가, ‘뇌-기계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뇌공학 기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고등학생이 되어 물리 과목에서 실험 수업과 스테디 활동을 하면서 ‘회로를 이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아주 작은 칩들이 모이고 모여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 미세한 칩에 대한 기초 실험을 진행하면서 호기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뇌공학 분야에 적용하기도 수월할 것 같았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전기전자공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대학 입학 후, 더 공부해 보니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아주 미세한 생체신호인 사람의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적절히 증폭하고 필터링합니다. 이후에 인공지능을 통해 측정된 신호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으로는 이 의미를 토대로 로봇 팔을 움직이거나 휠체어의 방향을 조작하거나 타이핑을 하는 등 제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방금 전기전자과의 수많은 연구주제가 스쳐 지나간 것을 느끼셨나요? 하나의 학과에서 이렇게 많은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또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기존에 흥미를 갖고 있던 회로, 반도체, 인공지능을 위주로 전공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더 나아가 타과의 전공 과목이더라도 제 분야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면 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강해 보았습니다. 저를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러 분야를 겁내지 않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지인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제 성향이 차후에 융합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특출나게 잘한다는 분야가 없었다고 느꼈던 시기를 겪다보니 다소 힘들었던 점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진로

3학년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면 옆자리 동기들이 연구실 인턴을 시작하고, 장기 현장실습을 다녀오고 지인 회사에서 기업 인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저는 방학마다 기타에 푹 빠진 상태로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고 친한 사람들을 만나 저마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다녔습니다. 물론 4학년이 되는 겨울 방학부터는 전보다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였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오던 인공지능과 회로 설계 분야가 저의 실력 혹은 적성 문제로 인해 더욱 깊어 가는 다루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4학년 1학기가 가장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번리사 시험을 이룬 나이에 합격하고 연구실 입학을 확정 지으며 인턴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진로를 확정짓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연구 분야인 생체신호 측정 센서 연구실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내구성 있는 구조물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에 소질을 보였기에 제가 만든 센서가 사람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성취감과 재미는 진로를 확고하게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술을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했습니다. 박사과정을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큰 동기부여가 있었던 교훈은 다른 아닌 전공 수업에서 어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시게 될 모든 길에는 산업계와 학계에 상관없이 사이클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사이클의 저점에서 여러분이 본인의 일에 대해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그 시기를 극복하려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 대해 재미있어 하고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험이 잘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원인을 파악하려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찾아내고 밤늦게까지 자발적으로 남아서 실험을 마치겠다는 마음 가짐은 결국 본인 스스로 연구에 재미를 느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후배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 하나를 손에 꼽자면 중요한 대내외적 일정에 대한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학술 및 학회에 지원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쌓으며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해보려 예체능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의 명예학회(EEHS), 인공지능 학회(YAI), 중앙컴퓨터동아리(YCC) 혹은 더 나아가 한국공학한림원의 차세대 공학 리더 (YEHS) 등 유명한 학술 및 학회는 지원 시기에 제한이 있거나 특정 학년에 대한 T.O.가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저학년들 사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서 선발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위한 학회 지원에서는 공급이 많지만 반대로 열심히 활동하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고학년에 대한 수요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학년을 높여서 생각해 본다면 학점을 인정해 주면서 기업 인턴을 해볼 수 있는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원 가능한 시기가 있을 뿐더러 지원하려면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해야하는 남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카투사, 의경, 행정병 등 특정 지원 시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업이 다 다르면 취직 혹은 대학원 진학 등의 진로를 결정하실 텐데 희망하는 기업 혹은 연구실에 대해서 미리 미리 찾아서 연락도 해보고 본인이 어떤 주제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공학도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하나쯤 뭔가에 미쳐 보고 졸업하시는 것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학과 공학, 그 경계에 선 건축과생

22학번 이덕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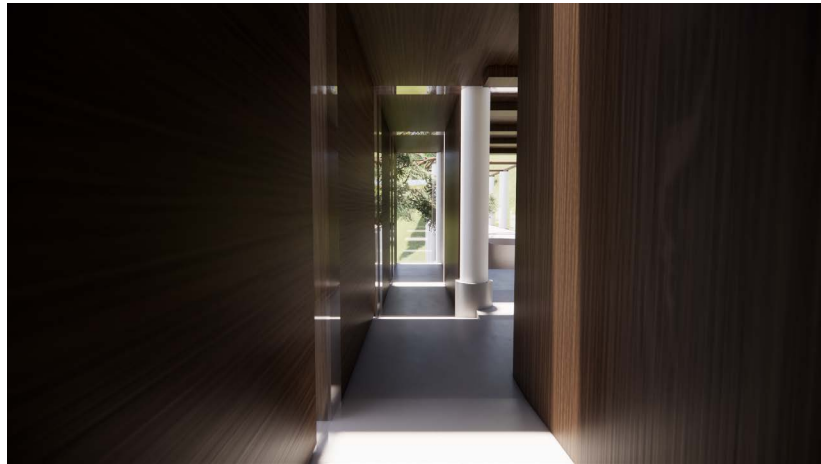
전공 선택 이유

두 전공에 관한 설명, 그리고 경계에서 나의 선택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는 두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5년제 과정인 건축학이며, 다른 하나는 4년제 과정인 건축공학입니다. 먼저 건축학은 주로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역을지에 대한 설계를 다룹니다. 건축물이 지어질 지역이나 역사, 인문, 예술 혹은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주제를 담고, 최종적으로 이를 매체를 통해 설득적으로 표현하는 과정까지의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설계 공부는 건축대상의 크기에 따라 학년별로 나누어집니다. 세부적으로, 교수님들의 각기 다른 주안점에 따라 다양한 설계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공간을 다루는 방식에서의 역사적·이론적 변천을 다루는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건축공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조, 환경 및 설비, 그리고 시공, 재료와 관리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룹니다. 구조 분야에서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구조체가 받는 힘을 토대로 부재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환경 분야에서는 건물의 창문과 문을 통해 내부 공간으로 유입되는 빛, 흐르는 공기, 그리고 퍼지고 모이는 소리를 공간의 형상과 설비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시공 분야에서는 건물을 실제로 짓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배우고, 재료 분야에서는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구조적 및 환경적으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이



건축설계1 수강 당시 렌더링

론과 실험을 통해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분야에서는 건축 사업 전반에서 계약 관계를 설정하고, 건설 순서를 계획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1학년을 마친 뒤, 제가 처음 선택한 전공은 건축학이었습니다. 이는 수학 선생님께서 제가 설계를 잘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리거나 모든 계산을 치밀하게 수행하려는 제 성향을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구상하고 그리는 일을 좋아합니다. 또한, 제 생각을 시각 매체로 표현하는 데 즐거움을 느꼈고, 이런 점들이 건축학과 잘 맞았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뒤 인문학, 특히 철학과 사상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 탐구에 대한 관심은 건축사와 건축 이론을 공부하는 데로 이어졌으며, 특히 이러한 이론이 건축에서는 구체적인 사물로 실현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론과 실체를 연결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이를 제 생각을 담는 그릇으로 변형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데에서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과 건축공학에 관한 교과를 공부한 뒤, 실제적인 일들이 피부로 와닿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공학 분야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므로 구조나 환경 등의 해석이 재밌었고 또한 현장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과 관리에서 배우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건축학에서 건축공학으로 전공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나의 대학생활

입학 당시에는 건축공학보다 건축학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처음 접한 설계 과목인 기초설계를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공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건축 설계의 상당한 작업량과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결국 중도 휴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휴학 후 한 달 정도를 쉬던 중 우연히 건설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흔히 '노가다'라고 불리는 작업이었으며 20층 높이의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수를 도와 일하며 도면이나 모형으로는 느낄 수 없는 공간의 크기, 철골의 무게, 철판의 넓이, 그리고 그 사이의 오차와 유격의 디테일이 얼마나 세밀하고 끝없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경험하면서 설계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설계된 공간이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겪는 무게와 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건축공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2학기에는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학문적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제 관심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계기는 입시 이후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고자 1학년 초에 인문학 동아리에 가입해 다양한 자유학예(Liberal Arts)를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공대생으로서 학부대학 소속으로 활동하거나 교양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접하기 어려웠을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글들을 통해 지식을 쌓았고 이를 통해 과학과 미술에 한정되어 있던 관심이 글과 사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글쓰기에 대한 흥미로 직접 글쓰기 동아리를 만들고, 문학 동아리에도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철학이나 문학 등으로 충족되지 않던 저의 학문적 욕구는 저를 다양한 수업들을 들도록 이끌었습니다.

한편, 문학을 좋아하던 마음은 극과 영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우연히 독립영화의 기획부터 촬영까지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문학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예술로 분류될 만큼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건축공학에서 구조, 시공, 관리 등 다양한 세부 분야를 공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학 설계 과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동지구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공사 당시 개구부 및 비계 모습

3

진로 이야기

대체로 나아가는 길과 내가 나아갈 길

건축학을 전공하면 대개 다양한 워크숍과 공모전에 참여하며 포트폴리오를 쌓고 졸업 후에는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건축사사무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대형 설계사무소이며 둘째는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루는 아틀리에(소형 설계사무소)입니다. 원하는 유형의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은 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신이 원하는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건축 설계 이외에도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미술, 무대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하면 졸업 후 주로 “OO건설”로 불리는 건설사에 취업해 경력을 시작합니다. 구조나 환경을 전공한 경우, 각 건설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해당 분야의 설계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공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여러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관리하

며, 관리 분야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계약과 자원 흐름을 조정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PF(Project Financing) 분야로 진출해 건축 자금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부동산 관련 직종, 공공기관(LH, SH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건축공학을 졸업한 후 두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나 환경 등 설계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루며 설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리를 좋아하는 만큼 구조를 깊이 있게 공부하여 구조 엔지니어, 한국에서 구조기술사로 분류되는 직업을 갖거나 구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조해석의 심화 교과를 이수하고 설계와 계산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학습하며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계획입니다.

둘째는 CM(건설 관리)에 대해 더욱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에서 자원과 인력을 조직하고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높은 품질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관리 기법을 추가로 학습하고, 금융 및 법률 등 사회적인 지식도 쌓아 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두 방향 모두 저의 흥미와 역량을 반영하는 진로이며 앞으로의 학업과 경험을 통해 더 구체적인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4

후배에게 한마디

건축은 삶의 기본과 맞닿아 있는 무언가를 여러 제약과 조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하실 때 학은 생각한 것을 표현하길 요구할 것이고 공학은 생각한 것을 적용하고 응용하길 요구할 것입니다. 언젠가 각자 마음이 가는 길로 나아가실 때 이곳에서 머무르며 생각하고 배운 것들이 여러분만의 자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배움이 단단한 토양이 되어, 여러분이 그 위에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배의 솔직한 이야기

22학번 서호연

1

전공 선택 이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시공학도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시공학과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드론과 로봇,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술로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데다 생기부 작성을 위해 우연히 읽게 된 경제·역사 도서에 흥미를 느끼는 등의 일이 겹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했던 과를 적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과적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2학년 때는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수질 분석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와 환경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시 관련 학과가 친숙하게 느껴졌고 결국 제가 과거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컴퓨터공학이 아닌 도시공학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저의 대학 생활에 대한 기억은 입학식도 하기 전에 갔던 신촌에 위치한 전통주점 ‘가막새’에서 시작됩니다. 선배들과 만나 첫 잔부터 소위 말하는 친친주(소주와 맥주, 사이다를 일정 비율로 섞은 술)를 원샷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하루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촌놈이었던 제가 신촌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에 압도되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대학생활이 시작되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입학한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기숙사는 모두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해본 적도 없는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갑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와 친구들과 마음껏 놀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놀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공부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전공 수업을 배우는 것도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처럼 ‘이걸 어디다 써먹지?’ 하는 생각이 들어 적당한 물 흐르듯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만 노력했습니다. 새내기 때는 시간이 많다 보니 취미 아닌 취미도 하나 생겼습니다. 공강 시간에 언기도(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캐럴에 누워 햇빛을 받으며 역사책을 읽곤 했습니다. 원래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보니 ‘이거라도 읽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때 책을 많이 읽어둔 것이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제가 빠른 생일이라 드디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진짜 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라도 모자라 중간고사가 끝난 뒤부터는 두세 개씩 병행했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신촌에서, 저녁에는 부평으로 가서 새벽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딱히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고생 없이 자란 것 같아 정신 차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무려 5개 정도를 병행하며 이것저것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송도 RA 활동을 2학년 2학기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이 RA 활동 덕분에 송도에서 후배들과 즐거운 추억을, 그리고 RA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대학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또 하나의 활동인 ROTC(학군단)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학 동안 훈련을 다녀오고 학기 중에는 여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해보면 대학에서 남들이 '왜 굳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지만 저는 자신 있게 한 치의 후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제학 공부에 진심을 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 재미가 생겨 복수전공을 하고 자격증 시험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제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방학마다 훈련을 다녀오기도 하고 졸업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생각과 함께 졸업 후 곧바로 군대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졸업 전에 무언가 준비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들어가 이것저것 배우고 물어보기도 하며 졸업하신 선배들을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학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경제사학회이고 다른 하나는 URC로, 도시공학 과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부동산 금융 학회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달 뒤면 4학년이 됩니다. 아직 1년 이상의 대학생활이 남았지만 너무나도 짧게 느껴져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점차 제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서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3

진로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고 수없이 바뀌어 왔지만,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3학년이 되고 나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 어떤 길을 갈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과 선배들이 대체로 진출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분야로는 주로 기술직 공무원, 공사, 국책 연구소 등이 있으며 민간 영역으로는 시공·시행사, 금융 기관, 증권사, 보험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등이 있습니다. 공공직, 금융권, 전문직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 중 하나로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큼니다. 세상 일은 알 수 없으니 군인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벌써 진로를 정하고 확신이 생겼다면 그 길로 전력 질주하여 치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확신이 없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분야라도 조금 좁히고 좀 더 치열하게 살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후배에게 한마디

“저학년 때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이 놀아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저 단순한 말 속에는 그들의 엄청난 고뇌와 힘들었던 심경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저 짧은 문장 하나로 치환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부터 해보았으면 합니다. 생각의 기록 혹은 삶의 기록 노트를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우리의 삶은 때로는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펜을 잡고 나의 노트에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한 권 한 권 책이 끝날 때마다 얼마큼 인내해 왔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 성찰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실패를 경험하고 끝내 하나하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 네가 걸어갈 길

21학번 손혁제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저는 기계공학과 21학번 손혁제라고 합니다. 비록 다른 학우들에 비해 특출난 부분은 없지만,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제 학교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많은 후배님들이 공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학, 그 중에서도 특히 물리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리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이 SpaceX Falcon 9의 성공적인 착륙을 계기로 기계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흥미로 확장되었습니다. 해당 착륙 영상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사회 발전에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꿈은 저를 자연스럽게 기계공학과로 이끌었고, 꾸준한 노력 끝에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관심사를 따라 선택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점수에 맞춰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전공이 아니거나 전공이 기대와 달라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앞으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연속입니

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쳐나갈지에 대한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이제 저의 대학 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모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다양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입학 후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처음 가지게 된 꿈은 창업이었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을 다룬 미디어와 성공 사례들을 보며 저도 대학 생활 동안 창업 분야에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연세-넥슨 \sqrt{i} RC 창의플랫폼’에 도전해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연세대학교 고등교육 혁신원의 워크스테이션에도 도전하여 역시 의미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주제가 저와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에는 ‘멋쟁이사자처럼’이라는 학회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배워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도구들을 더 익혔습니다.

이제는 창업에 대한 꿈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해보니 그 어려움과 함께 전공 공부와 대학원 진학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전공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연세드론’이라는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학문만의 장이 아니다

저는 학점에 대해 욕심이 많습니다. 높은 학점을 통해 학과 장학금을 받거나 성적우수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 결과로 매우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학년 기준 4.1 이상). 그러나 저는 대학이 더 이상 전공 공부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공 지식은 요즘 시대에 원하기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학이 없어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학을 다니는 걸까요? 이제 대학의 의미는 전공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꿈을 찾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으며 혹은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전공 공부만 따라가는 것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을 찾아 직접 해보는 것은 때로는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찮음과 번거로움이 결국 결과를 낳고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과정보다는 그로 인해 얻은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해보면 전공 수업에서 배운 기초 지식이 활용되는 방식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멋쟁이사자처럼’에서 코딩을 배울 때 전공 수업에서 배운 코딩 지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연세드론’에서 활동하면서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CAD, 코딩, 역학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따로 있으며, 대학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대학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점은 고고익선이다

앞의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공부 말고 동아리나 학회를 많이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는 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학 중일 때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점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쌓아온 높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장학금에 지원하면서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등록금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해결한 비용은 저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들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얻은 시간을 공부와 다양한 활동, 그리고 여가 시간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다시 좋은 결과를 낳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저의 학교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학점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활동을 할 때 높은 학점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높은 신뢰를 보장해 줍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점은 졸업 후에 더욱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선택하든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학점은 여러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 남는것일까?

어떤 분들, 아니 대다수의 분들은 학점과 여러 가지 활동이 모두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럼 연애는 언제 하고, 술은 언제 마시라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대학교에서는 공부를 내팽개치고 놀기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고되고 귀찮은 과정과 비교하면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시절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지금의 저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후의 여러분에게 확실히 남는 것은 고되고 힘든 과정의 결과일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유가 있는 시기에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기도 하고 1학년 때부터 연애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 삶의 밀도를 높이고, 선택의 순간마다 저에게 무엇이 남을지를 고민해왔습니다. 저도 후배님들의 낭만 있고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무엇을 남길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대에서는 낭만을 찾기 어렵지만요.)

일단 해봐라

여러분이 어떤 도전에 앞서 고민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1, 2학년 때 이런 고민이 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 4학년이 되어도 모르는 것은 많습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했던 모든 활동 역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의플랫폼을 할 때 저는 코딩이라고 ‘print()’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창의플랫폼을 진행하면서 공부했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멋쟁이사자처럼’ 학회에서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 창의플랫폼을 통해 어느 정도 코딩에 익숙해졌다고는 했지만 학회에서 배워야 했던 것은 최종적으로 ‘React’라는 라이브러리였습니다. ‘React’라는 이름조차 학회를 하

며 처음 접했지만 학회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해커톤에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세드론'에서도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활동하는 이유는 이 활동을 통해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라면 좋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활동에서 그런 환경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도전하여 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3

마무리하며

공대생 후배님들의 경우 대부분 창업, 학사 졸업 후 취직, 대학원 진학, 변리사 등의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진로를 정한 후배님이든 아직 정하지 않은 후배님이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도전해 보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해당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고 이 분야가 자신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빨리 확인해야 앞으로의 계획을 제대로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분야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공이 맞지 않으면 전과를 하면 되고 창업이 맞지 않는다면 전공 분야에 집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미 있는 도전을 통해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학이라는 더 넓은 바다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23학번 박찬욱

1

전공 선택 이유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호기심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세계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활용되는 거시적 세계까지 탐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금속, 세라믹, 반도체 등 다양한 소재들의 제조 과정과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궁극적 호기심이 있었었습니다. 특히,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이끌며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저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화학과 물리 과목을 통해 물질의 특성과 상호작용에 대해 배운 것은 제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소재 기술과 관련된 형상기억합금, 그래핀, 반도체처럼 실재하는 것들을 접해 보니 단순히 이론적 개념으로만 여겼던 내용들이 실제 사례로 다가오며 더욱 선행하게 그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신소재공학이야말로 저의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활동들을 통해 신소재공학과 더 가까워지면서 이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 소재, 의료용 재료에 이르기까

지 신소재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소재는 인류와 지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중심에 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소재 공학은 저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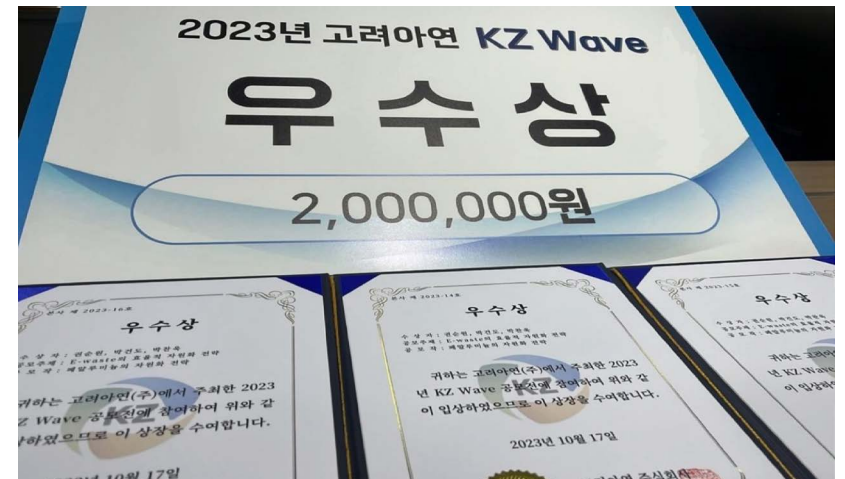
나의 대학 생활

제가 신소재공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를 읽어 보셨다면 제가 학과에 애정을 가지게 된 과정은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입학 전 신입생 OT와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를 비롯하여 입학 후에는 개강 총회와 신입생 환영회 같은 행사에서 교수님들을 만나 좋은 말씀을 들으며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학년 때는 새내기 부 대표를 맡았고 2학년이 되면서 신소재공학과 부학생회장을 역임하며 제가 소중히 생각하는 과반 단체를 학우들이 더 지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



생회 활동은 확실히 과 내의 다른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특히 송도 캠퍼스에서 1학년을 보내며 새내기 때부터 단절되기 쉬운 선배들과의 연결점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년에는 부학생회장으로서, 반대로 송도에서만 생활하는 후배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식사 약속을 통해 많은 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 시절부터 단절되는 연세대학교의 학번 간 특성이 아쉬웠던 저로서는 새내기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데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입학 전에는 학과 내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개강 이후에도 식사 약속이나 모두가 참여 가능한 축구 등의 활동을 통해 후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회 활동은 저의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 큰 의미를 가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도 준비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팀을 꾸려 공모전에 참가했던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경험 삼아 도전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입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공모전은 상금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지만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활동은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되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밤을 새워 준비했던 경험은 저에게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앞으로 공모전뿐만 아니라 대회나 봉사 활동, 행사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성취의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축구와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해 다양한 사람들과 운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며 학업 외적인 성취감을 느껴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교내 축제와 여름철 음악 페스티벌 같은 행사에도 참여하며 대학생으로서의 즐거움을 만끽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

진로 계획

현재 2학년인 저는 아직 뚜렷한 진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학교생활을 통해 점차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소재 공학과를 희망하여 진학한 만큼, 전공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신소재공학은 배터리, 반도체, 금속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전공 수업을 통해 제게 맞는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다른 학과에서 개설된 반도체 관련 전공 과목 두 개를 수강하며 국가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소재공학 전공에 더해 반도체 연계 전공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며 관련 과목들을 이수하며 장학금을 받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고민은 학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한 후 취업시장에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학부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학점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반면,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학점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관심 있는 연구실과의 컨택을 통해 인턴십 기회를 마련하며 진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1, 2학년 학생들은 아직은 명확한 목표를 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학점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 되면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해당 연구실과 접촉하거나 인턴십 경험을 통해 대학원 진학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보며 많은 것을 경험하자.” 이 시기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것들을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나요? 저는 한 번 뿐인 삶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은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무조건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여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만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도 가보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과의 부과대표를 맡고 부회장 역할을 수행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대학생이 아니면 해보기 어려운 것들이며 저 자신이 성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학생회 활동, 동기들과의 여행, 공모전 참여, 연애 등 여러 방면에서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봤을 때, 이 시절의 아름다움은 대학시절의 추억이라는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꼭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국가,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장학금 제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 취업 박람회,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등은 개인의 경험과 자기 계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람찬 대학 생활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들을 수 있는 수업에는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이 있습니다. 전공 수업은 각자의 전공에 따라 듣게 되지만 교양 수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 수업에서 좋은 학점을 얻기가 어렵다고 느껴, 교양 수업은 소위 ‘꿀교양’이라고 불리는 강의를 수강하며 좋은 성적을 쉽게 얻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사립 종합 대학으로, 질 높은 교양 수업이 매우 많습니다. 좋은 학점을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수업을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S/U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학과의 전공 과목도 부담없이 수강하며 관심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강', 즉 명강의로 알려져 있는 강의들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강의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라는 넓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강의와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며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SNS 주소

https://www.instagram.com/8chxuk?igsh=MTdueG1oYm8ybW9kYw%3D%3D&utm_source=qr8chxuk

꿈에 그리던 연세대 입학!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18학번 이한아래

안녕하세요, 생명대 후배님들! 저는 생화학과 18학번 이한아래라고 합니다. 생명대 졸업생으로서 여러분을 글로나마 만나 인사하게 되어 반갑고 기쁘네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꿈을 안고 생명대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서 어떤 선택지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알찬 학교생활과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생명대 학생이 그렇듯, 갓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제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 하나는 약대 편입이었습니다. 딱 두 가지를 두고 오래 고민했던 것 같아요. PEET 시험을 준비해서 약대에 편입하느냐, 아니면 '대학 가면 하고 싶은 일 101가지'에 적어 두었던 교환학생을 다녀오느냐.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M학원에 약대 상담을 다녀왔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해외에서 그 나라에 스며들어 살면서 이런저런 시야를 넓히는 것도 저에게겐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1년만 더 고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1학년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생화학과 과대표로서 학생회도 경험해 보고, 'YAYAN'이라는 중앙 동아리의 부회장을 맡아 즐겁게 노래도 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중앙 동아리에 발을 들인 것은 탁월한 선택이자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생명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내 다양한 과에서 저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며 다양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폭넓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앙 동아리 부회장 임기가 끝날 즈음인 2학년 말, 독일 대학으로 파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웬 걸, 그 해 12월,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는 상당히 위협적

생화학



인 존재였고 교환학생 파견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3학년은 제 진로 선택에 한 획을 긋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런저런 경험을 쌓게 되고 독일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고 돌아와야 하는지 알게 된 한 해였거든요.

저는 3학년이 되어서야 전공 관련 진로 탐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두 분의 연구실과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인턴도 해보고, 국가 소관 기관인 WISET(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주관한 외국계 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명시스템대학에 남아 4년을 지내고 졸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많이들 아는 전공 관련 대학원생이 되는 것 말고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해 회사원이 되거나 국가기관 연구소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변리사가 될 수도 있고 교직이수를 해서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졸업 후 과를 아예 바꿔서 법대, 경영대, 컴퓨터공학 등의 대학원생이 되는 선택지도 있고 증권사에서 전공 관련 종목들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흥미를 느끼고 끝까지 재밌게 할 수 있을 분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 연구실과 후성유전체학 연구실에서는 제가 유전체 연구에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바이오 벤처 기업 인턴과 기업 멘토링을 하면서는 제가 직장인이 되는 것에는 매

생화학



력을 못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교환학생이 미뤄진 1년 동안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분야에 발을 뻗쳐 보고 나서 제가 교환학생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돌아와야 할지를 알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부생일 때만 해도 한국에서 생물정보학은 생소한 분야였고 이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체 연구 쪽으로 제 선택지가 좁혀진 이후에 갖게 된 교환학생이라는 기회는 소중한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과목을 제대로 배우고 온다는 것은 저만의 차별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다들 가는 미국이 아닌 독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느냐 물어보시면 독일도 미국 못지않게 바이오, 제약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무엇보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어쩌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독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에 둘러싸였을 때 느낄 수 있는 해방감,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재미있고 알찼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심할 때라 교환학생 기간 동안 많이들 기대하던 여행은 그나마 독일 국내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여행 덕분에 기숙사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러 문화와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행도 여행이었지만, 무엇보다 수업 방식도 성적 평가 방식도 수업에서 다루는 내

생화학



용도 한국과는 많이 달랐고 원하던 과목들도 충분히 경험하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교환학생으로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었습니다. 독일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대학원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독일과 같은 환경에 다시 돌아와 연구하며 삶을 펼쳐 가고 싶어졌거든요. 독일에 있으면서 여러 대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 확실해졌기 때문에, 해당 연구들을 하시는 교수님들을 찾아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바이오 연구의 기본인 wet 실험과 더불어, 제가 짧게나마 배우고 온 생물정보학을 더 배울 수 있는 dry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실에 가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연세대학교 의과학과의 유전자 가위 연구실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세포나 동물에서 유전자 가위 실험도 하고 딥러닝 기반으로 유전자 가위의 효율 평가도 진행합니다. 제가 배우고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알차게 다 들어 있는 셈이죠. 사실 대학원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믿음이 많은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원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도는데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꽤 만족하며 재미있게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 속 경험들이 쌓여서 저의 만족스러운 진로 선택에 크고

생화학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생명대를 졸업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진로를 소개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대학원생 엔딩이라니 너무 허무한가요? 저는 진로에 대한 여러 선택지들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고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그 고민들에 대한 적절하고 최선인 답지로 대학원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대학원 과정은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있는 저에게는 안성맞춤인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할 수 있는 4년이라는 대학 생활 동안 진로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많이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공부만 해야 했던 고등학생 시절에 비해 대학생은 자유롭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넘쳐나거든요! 고민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들을 발견해 가시는 후배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AI AI Artist Baby

23학번 황정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마치 프리허그 사인을 들고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첨단컴퓨팅학부 새내기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젊으므로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꺼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인공지능학과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보았던 탓에 과학을 좋아했으며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인간에 대한 궁금증은 들고 돌아 인간의 의식과 관련된 학습, 기억, 감정, 상상력, 판단, 의지로 옮겨갔고 결국에는 뉴런들의 네트워크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복잡계, 창발 현상에 대해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들이 모여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질을 띠는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 사람들이 모여 문화가 만들어지고 mim의 형태로 전파되는 모습들, 뉴런들이 모여 의식을 만드는 것 등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수업에서 코딩

을 접했습니다. 그야말로 신세계였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면 컴퓨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후 여러 알고리즘을 배우고 나니, 인간의 뇌도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뇌는 그에 비해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Chat GPT가 널리 쓰이지 않았습니다. 실생활에서 만나보는 AI 중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정도여서 AI는 범접하기 어렵겠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을 읽다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이 뉴런의 작동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아가고 싶은 것들과 인공지능을 함께 공부한다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인공지능으로 정하고 인공지능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대학 생활

대학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여러 방면으로 넓게 떠올릴 수도 있고 우연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하기도 하니깐요. 대학 생활은 대학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보상의 시간, 다른 이에게는 간절히 원하던 기회, 혹은 그저 통과외레로 지나가는 분도 계시겠지요. 만일 대학 생활이 어떤 책의 내용이라면 정말 수많은 목차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틀이 없다’일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점을 잘 받고 어떤 동아리를 하고 친구를 사귀는 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더 큰 고민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의 상황에서는 이때껏 볼 수 없었던 많은 선택지가 자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감각을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저의 주저리를 덜어 놓고, 도움이 되는 말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의 대부분은 학생회였습니다. 1학년 때는 새내기 대표로, 2학년 때는 학생회장으로 역할을 하는 동안 학생 사회를 알아가고 개인적으로 뜻깊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함

인공지능학

니다. 연세대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학교 행정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각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연결점들을 찾아 이어 나갔던 것이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학과의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때때로는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서기도 하면서 저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 동기들, 선배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 새내기였던 시절의 어리숙한 모습이 엇그제 같은데 어엿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또 금방 오겠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시간을 채워 나가세요. 아직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대학 생활에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소중한 가치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3

가까운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연세대학교 1학년의 묘미는 기숙사 생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억 하나를 꺼내 볼까요? 송도는 겨울이 되면 엄청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눈에서 헤엄을 쳐서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도 눈이 한창 내리는 밤이었는데 아마 기말고사 시험 주 마지막 이틀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나서 따뜻하게 방안에 누워 있었고, 룸메이트들은 내일 아침 10시에 시험이라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사람 고?”를 외치자마자 셋이 슬리퍼 차



인공지능학

림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발이 너무 시려서 후회했지만 눈덩이를 한 대 맞는 순간 이판사판, 다시 들어가는 글렀고 결국 손발이 얼 때까지 놀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사람만 한 눈사람을 만들고 결국 그날 새벽 3시에 기숙사 방으로 올라와서도 누워서 이야기하다 다 같이 잠에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었지만 룸메이트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룸메이트에게 애정을 쏟는 일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관계에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과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일은 참 소중합니다.

4

도서관을 잘 이용하세요

공대생은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취향이 있겠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 내용도 어려워 책을 읽을 기운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책을 보러 도서관에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도서관은 정말이지 보물입니다.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들을 구경만 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대학의 공부가 어떻게 흘러갈지 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문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사실은 각을 잡고 읽지 않아도 책의 제목만 읽거나 목차만 읽어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대학 도서관에는 전공 서적이거나 논문집이 있어서 특히 전공과 진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시간을 내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곳도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뜻밖의 우연을 마주해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저에게는 문학을 읽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5

느중(느낌 좋은 것)을 찾으세요

항상 레이더를 켜고 ‘느낌 좋은’ 것을 발굴해 내세요. 작은 부분에서 자신의 취향을 쌓는 것이 좋은 점은 어느 순간에서도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과, 때때로 필요한 순간에 나의 기분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 느낌 좋아”, “저 말투, 느낌 좋은데?”, “저 나뭇잎 곡선이 마음에 드네.”, “이 텀블러 색시한데? 코코아 타 먹으면 좋은 느낌 두 배.”, “숨을 참고 천천히 내뿜는 시간이 기분 좋아.”, “저 턱수염, 느낌 좋다.”, “트리플스트리트 밤거리는 느낌 좋지.” 이렇게 기분 좋은 것들을 찾으며 대학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6

진로에 대해서

인공지능학과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수학을 배우고 딥러닝 모델을 자세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관련 서적이 잘 나와 있고 모두가 코딩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부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학부 2학년 1학기부터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NLP, 비전, 헬스케어 등 관심 있는 연구실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혹은 인공지능 및 IT 관련 창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께서도 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도 하므로 창업도 좋은 진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나 학회를 통해 창업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Creai+IT라는 AI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공지능학과에서는 크게 자신이 대학원에 진학해 더 궁금한 분야에 대해 연구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지, 혹은 회사에 취직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7

새내기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첨단컴퓨팅학부 1학년은 2학년이 되기 전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니, 1학기가 끝날 무렵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열심히 고민하여 원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은/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건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단위가 아직 있을까요? 전 세계가 통합될까요?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상상이지만, 저는 동시에 이것을 아주 소중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꿈꾸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출발선에 선 당신이 처음과 같이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험하고 또 경험하세요

24학번 임도윤

1

전공 선택 이유

“너는 어느 정당을 지지해?” 제 전공이 정치외교학임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던진 질문입니다. 정치와 외교는 어릴 적부터 제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은 어릴 적부터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바쁜 아버지를 뵈러 어머니의 손을 잡고 놀러 가서 아버지 책상에서 이면지를 사부작거리다 아버지가 손에 들려준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한없이 높게 뿜린 돔 아래를 구경하다가 집에 오곤 했습니다. 반면, 뉴스 속에서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국회의원들의 투우장이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싸우고 상대를 짓밟고 혈투는 정



치의 모습에 회의감이 들었고, 전 훗날 정치와는 역일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정치와 외교보다는 법과 사회정의, 복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정치와 외교에는 어릴 적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정치와 외교란 큰 우주를 망원경으로 바라보며 여러 이익집단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법학은 사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세밀하게 관찰하는 학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장래 희망 설문지에 ‘검사’라는 두 글자를 적어낸 후부터 제 꿈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직접 법을 집행하여 사회정의에 기여하고 싶었고 억울하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정치와 외교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사실 전공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국내 정치나 세계 정치, 혹은 북한 관련 연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말하고 토론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제 큰 장점이자 제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기 전공 강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학개론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학문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실용성은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전공 강의를 들으면서 제 예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자만이 드러난 것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관심이 없었으니 당연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면, 무언가를 싫어하려면 그 대상을 정의할 수 있어야 그것을 싫어할 이유 또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무시하고 싫어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오만함을 반성했습니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시절 관심 있게 공부했던 경제학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란 단순히 자원의 배분 방법에서 그치지 않고 정당성 있는 권력의 투쟁과 지배, 사회 구조의 원리, 국가의 형성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객관성과 과학적 특성에 대해 고민합니다. 정치 또한 하나의 ‘과학’인 셈입니다. ‘외교’란 국제정치학의 다른 말로 정치의 한 부류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치에 대해 고민하는 학문이며 개인과 개인, 국가와 개인의 차원보다 더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치를 다룸에 있어서 고유의 가치와 특징을 인정받아 단순히 정치에 포함되지 않고 ‘정치외교’로 묶여 학문을 대표합니다. 단순히 탁상공론이 아닌, 정치사상 및 방법론과 비교 정치의 이론을 토대로 한국정치와 국제정치/외교론의 실제 사례들에 적용하여 현실과 맞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학문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찰합니다. 법을 직접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과정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인 간의 권력 투쟁만이 정치가 아니며 나라 간의 힘의 원리만이 외교가 아닙니다.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 공동체들이 추구해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결코 ‘탁상공론’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이 정치외교학 전공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전공을 추천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소 실용성 없고 일명 ‘뜯구름 잡는’ 학문이라고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학생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보며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돌보자 한다면 그리고 그 학생이 인간 사회의 관계성의 형성과 그로부터 비롯된 권력과 정치의 의미를 흥미로워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전공이 될 것입니다.

2

대학 생활

제 대학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도전정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친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힘들었고 고달팠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으며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그때처럼 공부하라고 한다면 절대 그때처럼 열심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여 자랑스럽게 연세대학교에 왔고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 보며 보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직 1학년 2학기지만 3월 입학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11월까지 정말 많고 소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남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즐겨워하는 저는 학기 초 OT와 새내기 배움터 때부터 학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쌓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1학기 새내기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새내기 대표를 하기 위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들에게 단순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 베푼 호의와 친절이 학우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 믿고 투표해 준 24학년 학우들을 위해 여러 학번 행사를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직접 계획을 세워 진행한 대동제 학

과 주점은 주점 영업 중 비가 오는 등 여러 위기도 있었지만, 순수익 100만 원이라는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24학번을 위해 진행한 학번 MT는 대략 60명의 학우들이 참가하여 함께 을왕리 바다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과의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학번 대표였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와 준 우리 학번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후회 없이 하고 싶었던 사업과 행사를 무사히 잘 진행했던 1학기 새내기 대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외교학과 제60대 학생회 ‘정진’에서 집행위원을 맡아 권리소통국원으로서 우리 학과의 소외되는 외국인이나 예비군 학우들의 권리를 위해 힘썼습니다. 외국인 학우들을 위한 행사인 ‘Finding All Foreigners’에서 외국인 학우들과 함께 토론과 퀴즈를 진행하기도 했고 학과 학우들을 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간식 행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회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번의 학우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학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경험은 오직 학생회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학창 시절 늘 배워 보고 싶었던 드럼을 배우기 시작해 학과 밴드 동아리 ‘은, 정’에서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배워보는 악기였지만 팀원들과 함께 합을 맞추며 음악을 완성한다는 경험은 색다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하게도 학과 축구 동아리인 ‘FC 연정’에서는 주장직을 맡게 되어 총장배 대회와 폴리텍컵 대회를 이끄는 경험도 얻었습니다. 새내기부터 고학번까지 함께 있는 축구부를 이끄는 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한다고 하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습 경기를 통해 팀의 단합을 이루어 냈고 비록 성적은 아쉬웠지만 함께 땀 흘리며 운동장 위에서 쏟아부은 열정은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최대한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학회나 학생회 등 대학 생활 중 할 수 있는 경험은 가능한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3

진로 계획

앞서 말했듯이 제 꿈은 검사이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회 정의를 직접 실현하는 일이 너무나도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며 토론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발전해야 하는 직업이 적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가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학점 관리와 법학적성시험 성적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대학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도 중요하지만, 학점 관리와 공부처럼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는 길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절 잡아주고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워 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기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될 후배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생이 되면 분명히 성숙한 어른으로서 뭐든지 척척 해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멋진 진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대학생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고등학생 때처럼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공부보다는 게임과 운동을 좋아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은 계획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며 하루하루 보내는 날들을 성실히 살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대학 생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젊음을 믿고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의 가장 큰 낭만인 연애를 꼭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연인을 만든다는 것은 평생을 타인으로 지내던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한 어른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주소: @dlaehdbs_

갓생을 위한 마음가짐 지침서

24학번 이채영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24학번에 재학 중인 이채영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분들, 그리고 예비 독수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 교육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필수 교육처럼 느껴지는 대학 생활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 진학한 이후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진로를 계획해야 할지 수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전달 드리는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의 이야기가 이 글을 읽는 여러 분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내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저는 ‘폭넓은 경험을 해보자’라는 목표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시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뚜렷한 목표 없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타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전공을 배우는 과정에서 영상의 종류는 무척이나 많고 콘텐츠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영상을 배우고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단편영화, 뮤직비디오, 방송국 뉴스 모니터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하는 데 환경과 인프라의 제약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시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제가 노력하는 만큼의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적어도 내가 하고 싶어서 노력했을 때, 환경과 인프라의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 대학에 진학하자’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지원과 시설, 연구의 방향성이나 선배님들의 진출 분야 등을 살펴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진학한다면 제가 노력하는 만큼 영상 및 방송 제작과 관련된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해당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이야기

노력한 만큼 다양한 기회를 얻고 싶다는 목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만큼, 1학기 시작부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였습니다. 그 첫 도전은 기장단이었습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24학번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24학번 내 행사를 주최하거나 고려대학교 교류반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활동적인 일을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동기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교류반과 넓은 인맥을 만드는 것 또한 연세대학교에 왔기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장단으로 활동하며 전공 교수님과의 간담회 주최, 과 MT 및 고려대 교류반과의 합동 MT 진행하기 등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기장단의 활동을 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명 열정페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같은 동기들에 대한 애정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 다양한 툴을 다루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장단 활동을 통해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배움의 기회까지 얻게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장단 활동을 통한 비전공 분야의 경험과 더불어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도 도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언론홍보영상학부 소속 단편영화 제작 동아리 앤딩크레딧에 지원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직접 쓴 작품이 동아리 내 영화 제작 시범시

스로 선정되어 한 학기 동안 총연출로 영화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작성부터 배우 모집, 소품 및 로케이션 선정과 장비 대여 등의 경험을 통해 실제 영화 제작 현장의 느낌을 느껴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 학기 동안 촬영한 작품을 가지고 배우님들과 외부 손님들을 초대 한 상영회까지 주최하여 작품의 제작뿐만 아니라 배급과 상영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화 제작은 pre-production, production, post-production뿐만 아니라 제작과 상영, 배급까지의 전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앤딩크레딧의 학회장이 되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영화 제작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더불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소속 영화학회와의 합동 촬영 기회 등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경험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앤딩크레딧에서 영화를 제작하며 영상 제작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었지만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친목의 성격이 강한 동아리 특성상, 전문적으로 영상을 배우고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교교육방송국 YBS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과 동아리에서 얻은 영상 제작의 흥미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연고전 기간 직전 3차 수습국원으로 들어가 올해 연고전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부원들과 팀장님들의 열정을 보며 앞으로 YBS에서 다양한 장비 조작과 영상 편집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만큼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학업입니다.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학습 과정에서 여러 학문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면서 특정 분야에만 매몰되지 않고 학제적인 성격을 갖는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교과 활동 이외에 교과 활동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교과 활동에서만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동시에 도전하고 싶은 경험이 생겼을 때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복습과 성실한 과제 수행의 결과로 첫 학기를 최우등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여 추후에는 교환학생에 지원하여 해외에서 학업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진로 이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하는 경험이 곧 진로가 된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동기들을 보면 진로를 정하고 그에 맞춰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심 분야를 찾아 보면 자연스럽게 진로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로를 정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찾아야 한다는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강하게 느끼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로는 연예인들의 자체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PD입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좋아하고 응원했던 아이돌의 영상을 챙겨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아이돌의 프로그램을 챙겨보다가 점차 다른 아이돌의 인기가 많은 영상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돌 자체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챙겨보며 잘 만든 프로그램과 아쉬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왜 인기가 많을지, 아쉬운 콘텐츠는 어떠한 점에서 관심을 얻지 못했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득 이러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며 자체 콘텐츠 제작에 대한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타 대학교에서 언론학 개론 강의를 들을 때도 마케팅 강의를 들을 때도 UX/UI 디자인 강의를 들을 때에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자체 콘텐츠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학년 1학기, 자체 콘텐츠에 대한 저의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과 해본 경험들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현재에는 자체 콘텐츠가 예능형, 다큐멘터리형, 시리즈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앞으로 배워 나갈 강의와 다양한 전공/비전공 경험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의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4

후배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하는 경험이 곧 진로가 된다”는 말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고민은 큰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입, 혹은 취업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마주한 여러분들에게 대학생활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당장 문제 하나에 나의 합격과 불합격이 달려 있고 지금의 선택에 취업의 가능성과 불가능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에 파묻혀 인생에서 한 번뿐인 20대의 대학 생활을 흘려보내기에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촉박함과 걱정은 잠시 뒤로 버려 두고,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해왔던 수많은 노력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평범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수만 가지의 특별한 삶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도에서의 1년

후배들에게 전하는 진심

24학번 백선우

1

전공 선택 이유

흔히 사회학이라 하면 무엇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교에 입학할 당시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 몰랐고 사회학에 뜻을 품게 된 것도 고교 생활의 절반을 지나온 시점이었습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뜻을 품고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를 소개하기에 앞서 사회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회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사회 전반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교에 진학하여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어도 사회 현상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빈부격차가 심할까?’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부터 ‘그렇다면 왜 빈부격차가 발생할까?’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까지 사회 현상과 문제 전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분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학에 뜻을 품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사회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는 분열의 연속이었습니다. 젠더는 남과 여, 경제는 빈과 부, 정치는 좌와 우, 세대는 신과 구

를 구별 지으며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 통합과 공존의 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즉, 고교 시절 사회학도로 성장하고자 했던 다짐은 우리 사회의 ‘분열’이라는 키워드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한 답을 찾고자 선택한 학문이 사회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첫 전공 강의 수업에서 교수님이 처음으로 소개하셨던 개념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사회학도로서 지녀야 할 시선으로 개인적인 문제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과 구조로 이해하며 연관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삶이 주변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교 시절 품어왔던 사회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선택한 학문이 사회학이었음에도 막상 입학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접하니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느낀 사회학을 소개하는 이유는 늘어만 갔던 질문들이 제가 사회학에 대해 느낀 새로운 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문제와 현상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으나 사회학에서는 정답과 오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문제와 현상을 두고 그저 각자의 생각과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개진한 사회학적 생각과 견해를 접하고 사회학에 뜻을 품은 동기들과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때로는 저로 하여금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생각들은 스스로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회학도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사회학도로서 제 전공에 큰 만족을 느낍니다.

이제는 분열이라는 키워드를 넘어 삶을 둘러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과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제 생각과 견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학에서 정해진 정답과 오답은 존재하지 않기에 자유로이 사회학적 사고를 확장시키며 경제, 정치, 젠더, 세대, 교육, 문화, 역사, 환경 등등 범주의 제한 없이 사회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사회학을 통해 개인들과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학도로서 책을 펼칠 때마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대학 생활

대학 생활의 시작이 제게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평생을 지방에서 공부했던 입장에서 고향을 떠나 서울도 아닌 송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새내기 새로배움터와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행사에서 나를 많은 대학 친구를 만났으나 타지 생활 속에서 가끔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고교 역시도 통학형 일반고를 졸업해서 그런지 처음 보는 룸메이트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다는 것도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송도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학기 초반에 저는 반쪽짜리 대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학생 자치와 학내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교에서 부학생회장의 임기를 끝내며 자연스럽게 대학에서의 학생회 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NEXUS’에서 전략기획실원으로 대학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내 축제인 대동제, 교학협의회 연희마루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공약 정책을 집행하며 학생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학기가 종강할 때 당시 속했던 국서인 전략기획실의 실장이 공석이 되어 제가 전략기획실장으로 나름의 승진을 하여 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돌아보면 1년 동안의 학생회 활동이 공동체 속에서의 저를 성장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이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노하우를 살려 과외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입시 컨설턴트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려 노력했고 자연스럽게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과 관계를 이어가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노력했고 지금은 교수님들과 학회도 다니고 술도 함께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떠나 후회 없이 시도했던 한 해를 보낸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학에서의 첫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

사회학

니다. ‘난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가?’와 같은 자전적인 질문들과 ‘나는 대학에서의 첫 해를 어떻게 보냈나?’와 같은 성찰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연히 학과 최우등상을 받게 되었지만, 그만큼의 학문적 성취와 스스로의 발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로스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법조계가 과연 내가 진정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길인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질문들 끝에 내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사회학도로서 또는 연세인으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진로 계획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로스쿨을 통해 법조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현상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정의라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도 정의였습니다. 이때 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하고 법조계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중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 아래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직접 마련하는 것에 대한 꿈은 확실합니다. 현재 그 과정 중 하나를 로스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

4

후배들에게 한 마디

이 글을 읽는 후배들은 비록 다양하겠지만 다수가 차근차근 꿈을 키워나가고 있을 친구들이라 생각합니다. 사회학이 그러하듯 꿈과 목표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이 답이라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직 저 역시 고작 대학에서의 1년을 보냈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해 확신도 없지만 제가 시작한 뜻이니 믿고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내가 품은 뜻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것 역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이, 그리고 대학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이 각자가 품은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함 속 단단함을 찾는 과정

18학번 김영식

1

전공 선택 이유

고등학생 때는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엔 이과였기 때문에 공대나 의대를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목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고등학교 2학년, 음악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집안에 물음표를 가득 띄웠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학은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시절 즐겨 들던 빈지노 음악 속 '의류학과인 친구의 양말이 너보다 낫다'는 가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동대문을 다니며 옷을 살 정도로 패션에도 관심이 있었기에 의류환경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뮤지션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지만 고등학생 시절 반항기 섞어 내린 결정은 주객을 전도시켜 의류학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미 한 번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한 것을 포기하는 경험을 하며 다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조금은

겁나고 애정하는 것이 일로 여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새내기 때부터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학 생활 중 내린 순간의 결정들이 누적되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패션 전공자로서 많은 학생들이 한번쯤은 자신의 브랜드 런칭을 꿈꾸듯,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에, 관련 경험을 쌓아볼 겸 패션 연합 동아리 'O.F.F.'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첫 패션쇼를 위한 디자인을 준비하면서 첫 디자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중국에서 진행된 패션 콘테스트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류 제작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업계에서의 제작 방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원부자재 시장부터 패턴실, 샘플실, 전후 가공업체까지 직접 발로 뛰어가며 하나씩 배워야 했습니다. 중간에 비용도 많이 낭비하고 현직자가 보기엔 비효율적인 과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를 통해 저만의 프로세스와 의류 생산의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정 자체만 보면, 디자인과 의류 제작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패션 디자인은 그저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경험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디자이너라는 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저에게 큰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자이너가 되려면 자신만의 취향과 미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저는 아직 나만의 고유한 감각이 자리 잡지 않았다는 생각에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실패에 대한 걱정이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로 작용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2학년 때는 '너드 매거진(Magazine NERD)'이라는 연합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패션과 필름팀으로 나뉘어 활동하는 이 동아리에서는 다양한 취향과 개성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모습이 동경의 대상이자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제게 큰 영향을 주었고 덕분에 제 취향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넓은 세상을 열어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패션 외에도 다른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경영학을 복수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전공 승인 직후 휴학을 하고 '한스타일'이라는 회사에서 리테일 AMD로 약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이때 하이패션을 지향하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감도와 브랜딩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느껴 브랜드의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의 측면을



Jeremy Zucker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 회사 월급과 주4일제 근무로 인한 남은 시간으로 동대문을 다니며 옷을 만들었는데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회사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보람을 느끼는 것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대를 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콘셉트와 방향 등을 설정하고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큰 계획을 잡아보았지만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고민만 하기보다는 일단은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데님 원단의 자켓과 바지 세트를 제작했는데 데님은 워싱 공정 때문에 제작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전에 제작한 옷과 그 과정이 전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겪으며 소규모 생산에서 제작 비용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제작을 위한 자금 확보의 필요성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든 데님 셋업이 이후의 대학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데님 셋업을 보고 많은 스타일리스트들이 협찬 문의를 해왔고 그 중에는 외국 아티스트인 제레미 주커(Jeremy Zucker)의 스타일리스트도 있었습니다. 더 키드 라로이(The Kid Laroi)라는 아티스트의 미국투어 공연에 제레미 주커가 함께 공연하는데 이때 데님 셋업을 입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칭 계정인 줄 알고 직접 미국으로 가려 했으나 비행기 값이 너무 비쌌기에 속는 셈치고 옷을 보냈고 몇 달 뒤 수많은 관객 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제가 손수 만든 옷을 입고 무대를 하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경



K FASHION AUDITON 수상작

험이었고 나의 옷이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아티스트들과 스타일리스트에게 협찬을 하며 다양한 인연을 쌓았지만 지속적인 제작을 위해서는 자금과 브랜딩, 개인적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 및 외부 장학금과 공모전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무신사 패션 장학생에 지원했지만 첫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K패션 오디션이라는 공모전에 지원하여 4벌의 옷을 제작해 본선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단계로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 과정에서 브랜드의 부족한 점을 수정하며 만들고 싶은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의 뼈대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후 과 동문 선배님의 지원으로 마련된 후배사랑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으며 제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보완해 무신사 넥스트 패션 장학생(MNFS) 4기에 선정되며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점차 저만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는 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을 하며 쌓아온 작업물을 과 동아리인 '카탈리에(C'atelier)', '압구정 빈칸' 등에서 전시하고 압구정에서 합동 팝업 등을 하며 사람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2024년에는 후배들과

함께 K패션 오디션에 도전해 최종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최종 순위는 런웨이 발표 때 결정되었지만 도와준 친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결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

진로 계획

앞으로의 목표는 글로벌 디자이너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느낀 것은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디자이너 브랜드와 같은 하이패션이라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표를 위해 해외 패션 스쿨로 석사과정 진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석사과정 유학 지원에 합격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유학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모전과 장학 지원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럭셔리 브랜드에서 근무하며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업계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그러한 디자이너 브랜드 등은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에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펀드와 프라이즈에서 인정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여정이 남아있다고 느낍니다.

4

후배들에게 한 마디

글을 쓰며 저의 대학 생활을 오랜만에 돌아보니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니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후배에게 글을 쓰거나 앞에서 강연을 하는 선배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거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단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

만 막상 지금의 저는 여전히 많은 것이 불안하고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니체도 그런 말을 했지요.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무의미함을 두려워한다고. 당장 석사 진학에 떨어질까 두렵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때가 오는 것이 아닐까 무섭습니다. 다음 기회라는 건 언제나 허용되는 건 아닐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행동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눈에 미련해 보인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보장해주는 면허증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을 거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다다르게 해주는 수많은 기회의 연속이었습니니다.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수많은 불확실함 속에서 단단함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자!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위해

19학번 박희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품영양학과로 오지게 되었나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처음부터 식품영양학과를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생명과학과 화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진학할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고3이 되었을 때 실생활과 밀접한 학문인 식품영양학과가 눈에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하여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때 많은 이과 학생들이 그렇듯 메디컬 계열에 대한 생각이 있어 PEET 시험을 준비해 볼까 고민도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식품영양학이라는 학문에 빠르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깊게 맞닿아 있어 배우는 즐거움이 컸고 어느덧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어 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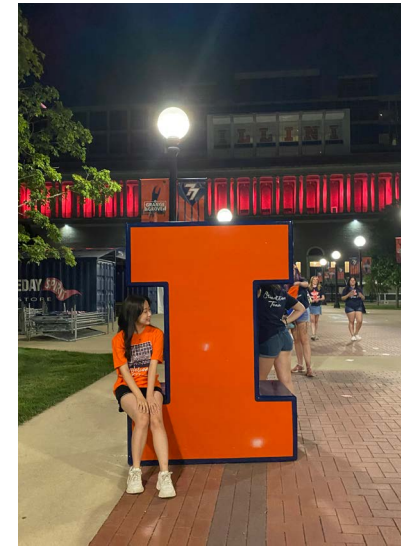
식품영양학과 19학번 만우절 행사

식품영양학과에 빠를 문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식품영양학과 학생으로서 가능한 대부분의 경험을 해보며 정말 알찬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인지 학교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경험하는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2학기에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꿈꿔왔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UIUC)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은 끝에 드디어 교환학생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보통 교환학기에는 12학점 정도를 수강하지만, 저는 듣고 싶은 과목도 많

아 16학점을 수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카고 여행, 할로윈 파티, 동아리 potluck 행사, 옥수수 미로 탐방, 아이스하키, 풋볼, 농구와 같은 각종 스포츠 행사 등 미국 대학 문화를 매주 알차게 즐기며 생활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외국 생활을 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생이라는 보장되어 있는 신분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어디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의 자유로운 토론 위주의 수업도 흥미로웠고 영국인 룸메이트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던 기억, 연세대학교에서 UIUC로 함께 교환학생을 간 친구들과 함께 Fall break 때 캐나다 여행을 했던 기억, 그리고 한국보다 활성화된 미국 대학 리그의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보며 스포츠의 재미를 알게 된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만약 UIUC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캠퍼스 안에 있는 Insomnia Cookies의 chocolate chunk cookie도 꼭 먹어 보세요. Insomnia Cookies의 cookie cake로 생일 파티를 한 추억은 함께 교환학생을 갔던 연세대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2022년 8월 교환학생 시절

저는 영양교사를 꿈꾸며 교직이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양교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2021년 1학기 휴학 중에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1년 2학기부터 교직 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직 수업을 듣는 시간은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교직 수업을 들으면서 교육사, 상담의 기법 및 과정, 다양한 수업관에 대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모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수업을 듣던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다 보니 엇그제 같지는 않네요), 이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이 되어 10년 만에 학교를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맛이 없게만 느껴졌던 급식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었는지 깨닫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생애주기 영양학’, ‘급식경영학’ 등의 수업을 수강하고 연세대학교 급식·외식경영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꾸준히 식품, 급식, 외식 업계의 트렌드를 공부하며 해당 업계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한 AI융합심화 전공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2023년에는 ‘인공지능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AI융합심화 전공 수업들도 들으며 바쁜 마지막 학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분야라 많이 어려웠지만 코딩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도 느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저는 영양교사로서 하나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고 학



2023년 4월, 교생실습 당시 수업 시연 현장

부-대학원 연계 과정에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대학원 연계 과정에 합격하여 학부생으로서 마지막 학기였던 2023년 2학기부터 연구실 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2024년 2월 학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어느덧 급식외식경영연구실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사이 저는 급식 로봇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연세대학교에서 2024 APacCHRIE Conference(아시아태평양 호텔·외식·급식·관광 학회)라는 국제학회도 개최하고 마카오에서 열린 2024 APTA Conference라는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하며 바쁘지만 즐겁고 알찬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흥미로워 앞으로도 급식·외식 경영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사와 같이 식품영양학과 학생으로서 딸 수 있는 면허증과 자격증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영양사 면허증의 경우 졸업요건보다 학점도 많이 들어야 하고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등 부담감이 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식품영양학과에 온 만큼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영양사 면허증 취득을 위해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인 ‘영양사 현장실습’의 경우, 연세대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하는데 임상영양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영양사 현장실습을 하며 임상영양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영양사 면허증도 취득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올해 위생사 면허도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새내기 후배 여러분! 신촌이 아닌 송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동기들, 룸메이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우절 날 식품영양학과 19학년 동기들과 함께 교복을 입고 모여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직도 동기들과 함께 송도에 종종 놀러 가곤 합니다. 진리관B 앞에서 화계를 주문해서 먹고 센트럴파크에서 산책하다 보면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해양경찰청 쪽에 있는 ‘신복관’과 오네스타의 ‘젠젠’도 꼭 가보시고 송도 곳곳을 놀러 다니세요! 그러다 2학년이 되어 신촌에 오면 꼭 신촌캠퍼스 곳곳을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광혜원과 청송대, 크리스마스 즈음 언더우드관 앞에 설치되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 연세대학교의 아름다운 교정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합동운동전, 아카라카, 연고전 등 연세대학교만의 행사들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파란색의 옷을 입고 하나가 되어 응원하며 뛰어노는 연세대학교만의 특별한 문화

를 경험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과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는 편안함도 좋지만 다양한 과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되는 다양한 진로와 가치관,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서 오는 호기심과 즐거움도 대학 생활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 이것저것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8개의 대외활동을 하고 교내 동아리 2개와 연합 동아리 1개에서 활동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는데요. 코로나19로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인지 아직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 저는 학교에 남아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SNS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Profile

- 2019년 3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입학
- 2024년 2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 시용할 심화 수석 졸업
- 2024년 2월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
- 2024년 3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입학 (학부-대학원 연계 과정)
- 2023년 연세대학교 중앙 봉사 동아리 KUSA 62기
- 2020년 1학기, 2021년 2학기 최우수상 수상
- 2020년 2학기, 2023년 1학기 우수상 수상
- 2022년 2학기 UIUC 교환학생 파견
- 2019년 후기청소년 국제활동가 프로젝트
- 2019년 제4회 한일대학생미래포럼
- 2020년 맥심커피 서포터즈 커피라이터 5기 최우수상(개인) 및 우수상(팀) 수상
- 2020년 식생활교육홍보서포터즈 FENNY 3기
- 2021년 오리온 프렌즈 5기 우수상(개인) 수상
- 2021년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 4기
-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기자단 식약아리아 9기
-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 서포터즈

이메일: katlyn0211@naver.com
 인스타그램: @jo.raeng_hee

선배가 들려주는 전공과 진로 이야기

21학번 LI YINYING(이은영)

안녕하세요, 2025년도 연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저는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아동·가족학과 21학번 LI YINYING(이은영)입니다. 유학생인 저의 경험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하신 여러분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 전공 탐색 E-book 제작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

전공 선택 이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하고자 바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고 중국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진로 선택에 대해 많은 방향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약 3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0-2세 영아를 관찰하고 보육교사의 보조 역할을 하며 교사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와 교사의 상호작용, 아이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이 주제를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 만에 긴 방향을 마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를 선택한 후, 어떤 나라가 유아교육 분야에서 성과가 많은지 자료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학 생활은 가까운 나라에서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오은영 박사님 등 유아교육 방면으로 유

명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중히 고민한 끝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는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전공 수업을 들으며 관심 있던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기, 아동기, 더 나아가 성인기와 노년기까지 인간 생애 전체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입학 후 복수전공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복수전공은 주 전공 외에 관심 있는 다른 전공을 교양 수업보다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단일 전공에 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과 멘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여러분은 어떤 대학 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 방황 끝에 잡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던 만큼, 유학생으로서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약 3년간 학과와 단과대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나라별로 문화적 차이가 있기에 학생이 주체인 학생회 활동은 처음이었지만 코로나 학번으로 입학한 저는 한국인 학우들과 친해지고 싶었고, 학우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에서의 첫해를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생활과학대학 학생회 소통국원과 아동·가족학과 학생회 새내기 부기장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는 학우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교수님과 학우들 간의 연결다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동·가족학과 부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3학년 때는 아동·가족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생활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부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생활과학대학 한아름제, 아동·가족학과 50주년 기념행사 등 학과와 단과대 차원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 관리,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유학생으로서 경

험하기 어려운 학생회장단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고, 아동·가족학과와 생활과학대학이라는 공동체에 깊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 활동 외에도, 전공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수업 외에도 전공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동·가족학과 학회 소꿉에서는 학회원으로 학우들과 함께 주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발제하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에도 관심이 있어 아동·가족학과 사회·정서발달 연구실 학부생 인턴으로 지원해 논문 리서치 및 연구 보조 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발달 연구실에서는 학부 조사원으로 직접 초등학교에서 신경인지 기능검사를 하고 종단 데이터 연구(ADDS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대학원 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활동은 전공 지식 및 자료조사를 깊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대학원생 선배님들과의 의사소통 방법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적인 성격의 저는 볼링 동아리에 가입해 취미를 새롭게 만들고 다른 단과대 학우들과 교류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는 새로운 상황과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나의 진로 이야기

누군가 저에게 학부 졸업 후 계획을 묻는다면 저는 항상 대학원 진학이나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통해 기획과 마케팅 업무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강점을 살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새로운 분야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한 향수 브랜드에서 판매 매니저와 해외 마케팅 업무를 맡아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약 1년 간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자격증 공부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를 최우선 순위로 둘 계획입니다. 저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어 영

어의 중요성을 간과했지만 대학원 랩실에서 학부생 인턴을 하며 영어가 학술적 연구와 다양한 자료 조사를 위해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심리적인 힐링과 더불어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 마디

E-book 제작 활동에 참여하며 유학생으로서 어떤 이야기가 후배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신중히 고민하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인 제가 수능이나 한국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100%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연세대학교에 입학 후 궁금한 점이나 유학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식사 약속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설레는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시도로 써 내려간 대학 생활 이야기

19학번 박수빈

안녕하세요? 통합디자인학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통합디자인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같은 과 디지털미디어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수빈입니다. 언젠가 후배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런 글을 쓰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제 대학 생활과 경험이 여러분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통합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되셨나요? 아마 저처럼 미술 실기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디자인과를 지원하게 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 진로를 희망하다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학업에 방황기가 왔었는데 비실기로 갈 수 있는 디자인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시 지원을 위해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과정에서 디자인 책들을 여럿 읽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하게 가고 싶던 것뿐이었는데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현역 때 입시에서 미끄러져 영어 통번역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밤새 공부를 하다가 문득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입시를 치러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디자인을 밤새워도 좋은 일이라고, 가슴 뛰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1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그렇게 어렵게 학교에 들어왔는데 정작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동기들, 친구들과 열심히 논 것 외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따로 디자인 스킬을 위해 연습을 하거나 동아리, 대외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송도-신촌을 오가는 것도 번거로웠고 작은 대외활동을 하는 게 ‘가성비 떨어지는 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학년이 되자마자 COVID-19로 비상사태가 되어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도 보기 어려워지고 회의감도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하는 게 맞나? 차라리 고시 준비를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입시 준비 때와 달리 미래를 모르겠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 다시 온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돌파구가 된 건 소모임이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제품디자인’ 수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기초수업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던 중 동기의 도움으로 당시 학술정보관에 있던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작당에서 배웠어!” 작당(作當)은 2019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가 새내기 때 만들어진 학교 내 실물 프로토타이핑 소모임입니다. 앞으로도 활용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프로토타이핑 소모임에 들어가 제대로 배워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학년 1학기로 올라가는 겨울, 작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회장을 맡고 있던 제 동기, 그리고 선배들에게 프로토타이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던 장비 사용법과 재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COVID를 겪고난 후 라서인지 직접 실물을 내 손으로 빚어내고 다 같이 저녁 늦게 땀 흘려 작업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품디자인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때의 경험을 살려 학부 생활 내내 다양한 작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S-어워드도 받고 혼자서 3D프린터기능사 자격증도 땀했습니다. 첫 번째 졸업 작품으로 IHEI FESTA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작당에 들어가 사귀 친구들은 저에게 정말로 가족 같은 인생 친구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대외활동을 적게, 또 늦게 시작했지만 분명한 건 그 이후 활동들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원하는 소모임이 없다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학석사연계과정 서류를 제출합니다.

1학년 때의 저는 ‘학문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RC101 수업에서 학석사 연계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합디자인개론 과목에서 수학계획서를 작성할 때 <3학년: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저는 3학년 때 학석사연계 과정에 지원하고 합격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일종의 예언이 된 셈이네요. 3학년 1학기,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던 와중에 이상원 교수님의 ‘디지털미디어연구실’에서 행정 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계시더군요. 직접 경험해 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으로 코딩의 C도 모르고 이상원 교수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른 채 면접을 봤고 합격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관심 있는 랩 교수님과 우선 컨택하고 인턴 생활을 해보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들어가서는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의 경험 후 일단 학석사연계과정에 지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석사연계과정에 합격하면 학부 때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여 대학원을 다닐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므로 서류 및 면접과 같은 별도의 대학원 지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정규학기 내내 전액 장학금이 나옵니다.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해 지원서를 작성했고 학석사연계과정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학부를 다니면서는 대학원 과목 2개 정도를 수강



연구실에서 처음 했던 프로젝트인 <인공지능 동글> 체험 전시관

2024 연구실 하계 MT 단체사진

했습니다. 대학원 수업에 잔뜩 긴장하기도 했지만 교수님들과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제가 학부생인 걸 감안하여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리는 마음이 큼니다.

경험해 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연구실에 정착하고 3년 반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며 국가과제와 연구 리서치를 해 왔습니다. 이때 공부한 것들이 지금의 대학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학부 생활 때도 자잘하게 도움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원하는 분야의 교수님과 컨택하고 연구실 인턴 생활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자대 대학원에 가겠다고 다짐하신다면 학석사연계과정에도 지원해 보세요. 기한과 요건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요!

3

4학년이 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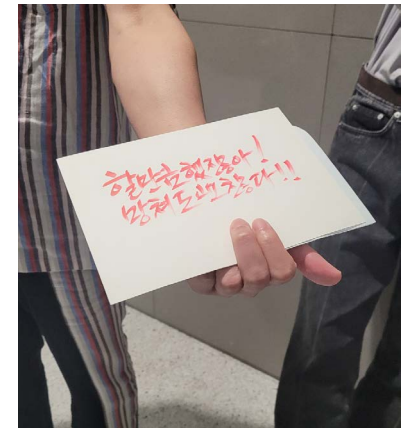
4학년 2학기, 졸업 전시를 마치고 저는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4학년 2학기가 끝나면 보통 졸업을 하거나 수료 상태로 졸업 유예를 하는데 휴학이라니? 다들 제 학기와 졸업 전시 경험과 휴학 세 가지를 매칭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더군요. 아무래도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저의 경우, 현재의 졸업 전시 과목인 '디자인엑스'가 생기기 직전, 마지막 '졸업작품스튜디오'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원래는 졸업 전시가 2학기부터 시작되는 1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디자인엑스라는 1학기짜리 과목으로 바뀌게 되어 졸업작품스튜디오(이하 졸작스)는 2학기에 듣는 졸작스(1)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졸작스(1)을 4학년 2학기에 끝내고 1년을 휴학한 후 복학하여 초과학기로 디자인엑스 하나를 더 듣고 졸업했습니다. 애매한 시기에 휴학한 이유는 졸작스를 마친 후 많이 지치기도 했고 학교를 다니며 별다른 대외 활동이나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졸업을 목전에 앞두고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석사연계과정에 의해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학업을 긴 시간 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학을 하며 꽤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LG전자에서 진행하는 LG크루 3기로 활동했습니다. 광고인으로 유명한 TBWA 박웅현 대표님과 TBWA 직원분들, LG전자의 각



LG크루 활동 중 발표 사진

종 책임 및 선임님들, 또 개성 넘치는 LG크루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이외에도 이들과 만나며 삶에 대한 태도를 배우고 제 세계를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밖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경험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같은 디자인과라도 다른 학교 다른 분야 사람들은 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입니다. LG크루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에는 LG전자의 Z패널(Z세대 고문)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영등포 쪽에 있는 LG전자의 체험 센터인 'Ground 220'의 프로그램 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이후로는 종종 프로토타입 체험 등 기회가 닿는 리서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 전 박웅현 대표님과

제품 디자인과 관련한 대외 활동으로는 인바디에서 열린 메이커톤에 참여했습니다. 메이커톤은 무박 2일로, 하루를 꼬박 밤을 새워 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간혹 공대생들이 있어 일반적으로 디자이너 1명과 엔지니어 1-2명 구조로 팀을

짜고는 했었는데 이 메이커톤에서는 디자이너가 저뿐이고 전부 공학도인 팀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촉압 측정기를 만들었고 3등으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메이커톤은 경연의 형식이다 보니 팀원들과 열심히 일하는 경험과 더불어 다른 팀의 팀워크나 결과물을 보며 또 많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아, 제품디자인모델링기사 자격증도 준비했는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것인데 전년도에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해 휴학한 해에 실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친한 동기와 둘이 무작정 기차를 타고 익산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떨어졌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저의 경우 자격증 공부를 하며 도면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과제를 할 때, 그리고 올지 로에 제 작품을 의뢰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학 기간 내내 대외 활동을 병행하고 틈틈이 연구실 연구 과제에도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영과 킥복싱을 새로 배우며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히 수영은 여전히 다니고 있는 저의 근간 운동이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내내 체력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방학 때라도 시간 내어 운동을 배워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4

마치며

많은 대학생들이 2, 3학년 때 진로 방향을 겪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2병’입니다. 내 손으로 선택한, 좋아서 진학한 학과인데도 겪습니다. 특히 통합 디자인학과는 진로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꾸준히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나아가는 동기들을 보며 ‘나는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는 걸까요?’ ‘내가 디자인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디자인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자기 의심도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오지 않는다면 정말 큰 행운이고요!) 사실 4학년 때에도, 취준 때까지도 쪽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뭐든 해보시라는 것입니

다. 지금의 저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다루는 디자인센터 연구원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CX 혹은 PUX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LG크루와 연구실에서의 경험들이 결정적이었는데 대외 활동이나 학부 연구생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겁먹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일단 시작해 보세요. 저는 재고 따지다 보니 시작이 늦어져서 더 많은 경험을 못 하고 올라온 게 아쉽습니다. 많이 해봐야 합니다. 특히 디자이너에게 경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디자인을 계속 하든 다른 진로를 갖든, 그것은 여러분을 디자인의 길로 이끌어줄 수도, 혹은 도망칠 수 있는 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쉬어 갈 언덕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알아보고 또 많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과처럼 작업량과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수면, 운동 같은 건강 관리도 꼭 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충만한 대학 생활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내 향해의 길은 내가 만들어

22학번 김수빈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22학번 김수빈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국어 국문학과를 복수전공하며 교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번 <선배들의 진로와 전공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저의 진로는 항상 '국어 교사'였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교육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다만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는 타 대학들의 교육학과와는 조금 다르게 사범대학 소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직이 주된 진로가 아니고 전공 과목도 교직 위주가 아니며 굉장히 다양한 세부 분야들



이 존재합니다. 저는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고 싶었고 더 다양한 길을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3

나의 대학 생활

코로나 학번의 마지막 세대로 시작한 대학 생활은 제약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재미있었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밥약(식사 약속)으로 만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학교생활에 관한 조언도 받으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상상했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악기도 다시 시작하며 밴드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또 독서 토론 학회에서 활동하며 학회장까지 맡고 이외에도 아카라카, 대동제, 합동 응원전, 연고전, 교류반 행사 등 다양한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같은 과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도에서 생활하면서도 RC 프로그램과 라이프 아카데미 등 많은 활동과 행사에 참여했습니

다.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의 첫 1년은 많은 제약 속에서도 나를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2학년이 되어 신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새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1학년 때처럼 학교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현실적으로 해 봐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교사 말고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는 일 자체가 막막했습니다. 교육학과 복수전공할 분야를 고민하다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심리학이나 교육행정공무원 국가고시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행정학을 공부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잘 맞지 않았던 전공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었고 또다시 진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밴드 동아리와 학회, 학생회 등 여러 가지 과 행사 준비 위원회를 학교생활과 병행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방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학년 2학기, 학과에서 개최한 지도교수와의 만남 행사에서 여러 교수님, 과 선배들과 많은 얘기를 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3학년에 교직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애초에 포기했던 저에게 전혀 늦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선배님들과 저의 진로에 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다시 국어 교사의 꿈을 되찾고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달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초과 학점과 학생회, 동아리, 교육 봉사를 병행하는 한 학기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4

진로 이야기

제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배, 후배들은 보통 1~2학년에 복수전공할 학과를 미리 결정하고 2학년년부터 준비하곤 했습니다. 2학년 2학기 말에야 본격적으로 진로를 결정한 저는 남들보다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방향처럼 보이는 것도 저의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살아 가면서 언젠가는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2학년 겨울방학을 준비했습니다. 교육학과에서 국어 과목 교직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을 승인받아야 했고 이후 4학년 1학기 전까지 교직 복수전공을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첫 복수전공 신청이 3학년 2학기가 될 수밖에 없던 저로서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복수전공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국어국문학과 전공 과목 선이수라고 생각하여 2학년 겨울 계절학기에 국어국문학과 전공 두 과목, 6학점을 한 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에도 전공 세 과목을 들었는데 하나는 송도에서만 열리는 기본 이수 과목이었습니다. 복수전공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송도에 있던 1학년 때 그 과목을 듣지 못한 저는 일주일여 한 번 아침 일찍 셔틀(셔틀버스)을 타고 신촌에서 송도까지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여름 계절학기에 국어국문학과 전공 수업 하나를 더 수강하고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작성란을 모두 최대로 채워서 복수전공을 신청했습니다.

리송까지 해 가며(다시 송도에 돌아와 수업을 듣는 것) 준비한 간절함이 통했는지 다행히 한 번에 승인을 받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졸업을 위해 초과 학점으로 전공만 22학점을 듣고 교육 봉사까지 병행하는 3학년 2학기 중간에 교직 복수전공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교직 이수나 교직 복수전공은 1학기에 선발하는데 1학기 선발 인원 중 결원이 생긴 전공에 한하여 2학기에도 선발합니다. 국어과 교직 복수전공 역시 자리가 있었는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좋은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에, 많이 불안하고 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수예정자

교직이수선발일자	2022-03-01
주전공자격증명	중등학교정교사(2급)
주전공표시과목명	교육학
교직이수선발일자(복수전공)	2024-10-24
복수전공표시과목명	국어

교직복수전공승인정보

전공구분	복수전공
신청상태	승인
승인일자	2024-10-24
교직이수선발연도	2022
교직사정적용연도	2022

5

후배에게 한마디

저의 긴 이야기를 통해 제가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안해하지 말고 후회 없이 나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주변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며 많이 불안해하고 또 조급해했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미루지 말고 뭐든지 도전하며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시도도 안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실패라도 해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를 일찍 정하지 못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해 보며 깨달았는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학년부터 일찌감치 진로를 정해서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4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고민하시는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꿈을 정하는 시기는 다들 다르니 너무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의 나이는 꿈을 정하기에 너무 이르잖아요. 오히려 그 나이에 확신을 가지는 게 대단한 것이지 못 정했다고 불안해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니 주변 사람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 얘기를 통해 얻어가는 점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예요. 그러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꼭 꿈을 이뤄 누군가의 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할 테니 우리 천천히 같이 걸어가요. 감사합니다.

2024 선배들의 진로 이야기

발행인	조용수 학부대학장
발행처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자유관A 604호 (우 21983) 전화 032-749-3124
편집위원	홍혜경, 남미정, 손은경, 안의정
학생편집위원	신민섭, 장혜리
제작	상상크리에이티브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연세대학교
학부대학